Economy p/11

잡히는 도마' 지구촌부엌 접수

metro
메트로 2014년 5월 15일 목요일 www.metroseoul.co.kr

Sports p/23

부상으로 엄준' 두개의 심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에서 학생들이 교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있다. 숙명여대는 이날 모든 수업을 휴강하고 강의실 밖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소통하는 '학생지도의 날' 행사를 열었다. /연합뉴스

스마트폰 '문명 이기'서 '애물단지'로

'모바일 소매치기' 스미싱 피해 갈수록 기승
장시간 사용자 뇌종양위험 일반인의 3배
피처폰으로 갈아타자 만성 편두통 사라져

#사례1 - 직장인 성제연(41) 씨는 스마트폰 문자도착 알림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 얼마 전 문자메시지를 무심코 터치하면서 악명 높은 스미싱(문자사기) 피해의 악몽이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이동사에 스팸 차단 서비스를 신청했는데도 어떤 교묘히 파고드는 문자사기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아예 스마트폰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한다.

#사례2 - 극심한 편두통 때문에 병원을 찾은 대학원생 이현희(35) 씨는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들었다.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면 편두통이 자연스럽게 나을 수 있다고 의사가 충고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잠 잘 때 빼고는 스마트폰을 놓지 않던 습관을 바꾸자 잠자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두통도 사라졌다. 이 씨는 이번 기회에 피처폰으로 갈아탈 생각이다.

'문명의 이기'로 추앙받던 스마트폰이 갈수록 '애물단지'로 변하고 있다.

조금만 방심하면 '모바일 소매치기'인 스미싱 피해를 보는 가하면 스마트폰 사용이 뇌종양 위험을 3배 가까이 높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까지 나왔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카드 업계가 차세대 결제수단으로 각광받던 앱카드에서 발생한 명의도용 사고로 발칵 뒤집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을 신고한 삼성카드에 대해 15일부터 특별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스마트폰에 신용카드를 등록해 결제하는 앱카드에서 해킹 피해사례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는 고객 50여명의 공인인증서 정보와 6000만원 정도이지만 제2·제3의 피해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일으킨 해커들이 삼성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신용카드사의 보안 취약점을 세밀하게 파악한 후 스미싱을 보내 악성코드를 심는 치밀함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피해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안랩에 따르면 올 1분기 스미싱 악성코드 발견 건수가 2년 전에 비해 400배나 늘었다. 특히 초기에는 사전에 유출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에 그쳤지만 최근에는 스미싱을 통해 악성 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뇌종양·불면증 원인 지목

스마트폰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다.

13일(현지시간) 프랑스 라디오 방송 RFI는 보르도 대학 이자벨 발디 박사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면 뇌종양 발생 위험성이 커진다고 보도했다.

발디 박사가 영국의학저널(BMJ)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한 달에 15시간 이상씩 5년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람은 일반인보다 뇌종양에 걸릴 위험이 2~3배 높았다. 특히 업무에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이들이 뇌종양에 걸릴 위험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앞서 지난 1월에는 미국 워싱턴 대학 크리스토퍼 바네스 교수 연구팀은 스마트폰 사용이 불면증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스마트폰 없이 살기 도전도

이같은 스마트폰의 폐해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지웰가족복지재단은 최근 스마트폰 사용 자제를 주제로 'THE가족 소통캠프'를 열었다. 25가족 100여명이 참석한 이 캠프에는 가족 스마트폰을 보관하기 위한 '스마트폰 바구니 만들기' 등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직장인 박재호(46) 씨는 "올해 초 집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기를 신년 목표로 세웠다"며 "이 덕분인지 가족들 간의 대화가 많아지고 특히 신문·책을 읽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활짝 웃었다.

/이재영기자 ljy@metroseoul.co.kr

한국 국부 1경630조 GDP의 7.7배 수준

우리나라 국부가 국내총생산(GDP)의 7.7배 수준인 1경630조원인 것으로 처음 밝혀졌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14일 국민계정 통계의 국제 기준에 맞춰 처음으로 국민대차대조표를 개발한 결과 이처럼 추계됐다고 밝혔다.

우선 국부인 국민순자산(자산-부채)은 2012년 말 기준으로 1경630조6000억원이었다. 국민 1인당 2억1259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국민순자산은 464조6000억원 늘었다. 요인별 증가분은 자산 순취득 등 거래요인이 219조8000억원,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손익 등 거래외 요인이 244조8000억원을 차지했다.

2012년 말 현재 한국의 국민순자산은 GDP의 7.7배로 호주(5.9배), 캐나다(3.5배), 프랑스(6.7배), 일본(6.4배)보다 높았다. 실제 한국의 토지자산은 비금융자산의 52.2%에 달해 GDP의 4.1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기자 min1@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진땀 빼는 강병규 장관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과 관련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안행부 장관 당장 사표 내라"

국회 세월호 현안보고…여야 한목소리 질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정부 측의 현안보고가 14일 국회에서 처음 열렸다.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세월호 참사 현안보고에서는 정부의 늑장 대응이 대규모 참사로 이어졌다는 여야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서청원, 이재오 의원 등은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등 정부측 관계자들을 "당신들"이라고 호통치거나 "죄인된 심정으로 잘못했다고 해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 초동 대처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통합 재난 시스템 구축 등 근본적 제도 보완 필요성을 촉구했다.

119 상황실과 해양경찰청이 의전 문제를 놓고 승강이를 벌인 내부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119 상황실에서는 8시52분에 첫 신고를 받고 황금 시간에 무려 19차례나 통화했지만 문제는 구조를 위한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재오 의원은 "부패정부"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무능한 대응을 질책했다. 서청원 의원은 "정치권은 당장 머리를 맞대고 세월호 참회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강 장관을 향해 "장관은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태 수습 능력과 사고가 이후 것도 없다"라며 "오늘 당장 사표를 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도 "사의를 표명한 적 있느냐"며 "아직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조현정기자

K-패션,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기자 수첩

김학철 <생활레저부 기자>

SPA 브랜드 자라의 회장인 아만시오 오르테가는 세계 3위 부자다. 야나이 다다시 유니클로 회장, 스웨덴의 스테판 페르손 H&M 회장 등도 세계에서 돈 많은 사람 중 하나다. 인터브랜드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100대 브랜드 중 자동차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IT기업와 패션 브랜드가 비슷한 수치로 경쟁했다. 패션업이 그만큼 돈이 되는 사업임을 세계 부자의 브랜드 파워만 봐도 알 수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세계 패션시장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고 적어도 2000조원은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지난해 국내 SPA 시장 규모는 약 3조원이다. 이 가운데 자라, 유니클로, H&M 등 해외 SPA 브랜드 빅3가 1조원을 넘었다.

명동에 가보면 입구에는 유니클로 매장이 있고 인근에 자라와 H&M이 자리 잡고 있다. 한류거리로 K-패션의 중심이 되겠다는 신사동 가로수길을 가봐도 외국 브랜드의 대형 매장이 대부분이다. 국내 브랜드는 편집숍에 모여 대표 상품 몇 개만으로 고객맞이를 하고 있다. 정작 있어야 할 곳에서 국내 브랜드들이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류바람과 재능있는 디자이너가 많다는 것이다.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국내 디자이너에게 생색내기 일회성 보상이 아닌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한류와 가능성있는 디자이너...여기에 투자한다면 있어야 할 곳에 있을 수 있다.

"청계산 추락 무인기 있다" 신고

군 수색결과 부서진 문짝

서울 근교 청계산에서 무인기로 추정되는 추락 비행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군 당국이 출동했지만, 수색 결과 부서진 문짝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4일 오전 "청계산 만경대(암반) 부근에서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발견돼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오전 8시께 한 주민이 송파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경찰서 신고내용이 군부대로 전파돼 확인 작업을 위해 군부대 조사팀이 출동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오후 정보 당국자는 "청계산 만경대(암반) 부근에서 발견된 무인기 추정 물체에 합동신문 결과 부서진 문짝을 비행물체로 오인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최초 신고자 정모(56)씨가 찍었다는 사진을 보면 문짝 테두리에 해당하는 사각 프레임 일부가 암반 사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데, 마치 백령도에서 발견된 비행기형 무인기의 동체와 꼬리날개처럼 보였다. 공교롭게도 색깔이 북한 무인기와 같은 하늘색이다.

14일 오전 무인기로 신고된 청계산 물체. /연합뉴스

정씨는 전날 오후 4시30분께 일행 3명과 함께 청계산 매봉에서 석기봉으로 이동하던 중 만경대 아래 군부대 철조망 안쪽 40~50m 지점에서 이 물체를 발견했다고 신고했다. /김현준기자

지방선거 후보 등록…의원 10명 사퇴

6·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15~16일 이틀간 전국 선거구에서 진행된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지방선거에서 시·도 지사와 교육감 각 17명, 구·시·군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시·도 의원 789명, 구·시·군 의원 2898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3952명을 선출한다고 밝혔다. 후보자 공식 선거 운동은 22일부터 가능하다. 지방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예정인 현역 의원은 모두 10명으로 이들은 공식 후보로 등록되는 동시에 의원직에서 자동 사퇴 처리된다.

새누리당은 정몽준(서울), 서병수(부산), 유정복(인천), 박성효(대전), 김기현(울산), 남경필(경기), 윤진식(충북) 의원 등 7명,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진표(경기), 이낙연(전남) 의원 등 2명이 최종 후보로 확정돼 의원직을 사퇴한다. 광주시장 전략공천에 반발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이용섭 의원은 이미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조현정기자

제발 시신만이라도… 세월호 참사 29일째인 14일 새벽 전남 진도 팽목항 방파제에서 한 실종자 가족이 지쳐 바다를 향해 절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병언 장남 A급 지명수배

밀항 대비 모든 항구 점검… 오늘 유 전 회장 출석도 불투명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A급 지명수배자는 발견 즉시 체포된다.

검찰은 대균씨가 밀항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인천과 평택 등 전국 밀항 루트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장 나쁜 상황을 상정해서 대비 중이다"면서 "(유대균씨 도피를 도와준 사람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있다면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오전 서울 서초구 염곡동에 있는 유 전 회장 일가 자택(일명 세모타운)에 수사관들을 보내 대균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현재 검찰의 연락도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져 수사를 피하기 위해 사실상 잠적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 체류 중인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42)씨와 장녀 섬나(48)씨는 체포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귀국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유 전 회장에게도 16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지만 아직 검찰에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자녀들에 이어 유 전 회장 역시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할 경우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한 검찰 수사가 예상 외로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장마철 인명피해 우려지역 특별관리

장마철을 앞두고 풍수해로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전국 2895곳에 대해 방재 당국이 특별관리에 돌입한다.

소방방재청은 여름철 풍수해 대비 비상대응체제를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방재청은 산사태 등으로 사상자가 생길 위험이 있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올해 127곳 더 파악해 2895곳으로 늘려 잡고 전담관리자 4346명을 지정했다.

방재 당국은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수판과 자동펌프 등 침수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철 역사 출입구에는 방수판을 배치할 계획이다.

침수 우려가 있는 도로·교량·지하차도 279곳에 대해선 신속한 교통통제가 이뤄지게끔 관련기관과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윤다혜기자 ydh@

7년 넘게 도망다니며 병역 회피

39세 IT업체 대표 면제 8개월 남기고 구속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 병역의무를 피해간 혐의(병역법 위반)로 유명 IT업체 J사 대표 하모(39)씨를 14일 구속기소했다.

1993년 애초 1급 현역대상으로 분류됐던 하씨는 2004년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돼 병역을 이행하게 됐다. 하지만 제대로 출근하지 않고 본인 사업을 벌이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여 2006년 편입이 취소되고 공익근무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하씨는 소집통지가 오면 주소지 변경을 통한 소집통지 취소 제도를 악용하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7년간 병역의무를 회피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병무청 직원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하씨 사무실로 찾아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고 도망갔다.

32세에 처음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하씨는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올해 12월31일을 약 8개월 앞두고 결국 구속됐다. 올해가 지나면 40세가 넘어 병역의무가 최종 면제된다.

/[illegible]기자 mkim@

‘후쿠시마 코피’ 실제 가능?

만화 ‘맛의 달인’ 장면… 방사선 위험도 논쟁 불 지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주변을 다녀온 인물이 코피를 흘리는 장면을 실은 만화 '맛의 달인' 최근 열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후쿠시마 코피' 만화가 방사선의 위험도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일본 주간지 '빅코믹스피리츠'는 지난달 28일 자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 마을에 다녀온 주인공 일행이 코피를 흘리는 장면을 실었다. 이어 이달 12일에는 원전 인근 후타바 마을의 전 촌장이 코피가 방사선 피폭 때문이라고 말하는 대목을 넣어 논란을 빚었다.

이에 후쿠시마 현은 "만화가 현민이나 후쿠시마 현을 응원하는 이들의 마음은 고려하지 않고 깊은 상처를 줬다"며 "후쿠시마현이나 현지 생산물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도 확산시킨다"고 반발했다.

피폭으로 실제 코피가 날 수 있는지도 논란이다.

엔도 게이고 교토의료과학대학장은 "방사선의 영향으로 혈액 중 혈소판이 감소해 출혈이 멎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1000mSv(밀리시버트) 이상의 피폭이 없으면 출혈을 동반하는 증상은 생기지 않는다"고 교도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아카시 마코토 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 이사장은 이와 관련, "가장 피폭이 많은 작업원도 700mSv 정도"라고 말했다.

일본 주요 언론은 만화가 묘사 방법 등에 문제가 있지만 관심의 배경에는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사히신문은 사설을 통해 작품 내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후쿠시마 주민이 시그로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권에서 관련 논의를 더욱 깊게 하는 내용이 다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도쿄신문은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지만 만화가 창작물이고, 장시간 취재에 근거해 비판적인 주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선미기자 seunmi@metroseoul.co.kr

病人遭醫活埋

의료사고 감추려 환자 매장

metro HongKong

주사 잘못 놓아 발생

중국 연우이셩에서 의사가 의료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환자를 매장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 3월 31일 운전기사 류예칭(53)은 오십견 치료를 받기 위해 리모씨가 진료하는 병원을 찾았다. 의사 리씨가 주사를 놓고 1분쯤 지나자 류예칭이 갑자기 입에서 흰 거품을 뿜었다. 당황한 의사는 환자를 진료소의 무균실로 옮긴 뒤 문을 잠갔다. 그리고 그날 오후 류예칭을 매장했다. 매장 당시 환자가 살아있었는지 죽어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류예칭이 실종되자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다.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그가 병원에 갔던 사실이 밝혀졌다. 리씨는 경찰에 "류예칭이 다단계 조직에 잡혀갔을 수 있다"고 진술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침통한 표정으로 "류예칭이 카드 놀이를 즐겼다. 자주 도박장을 찾았는데 어디인지는 모르겠다"며 나서서 이야기 하기도 했다. 또 가족들이 실종 광고를 거리에 붙일 때도 친절하게 광고 붙이는 것을 도왔다.

그러나 12일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다. 경찰은 병원 인근에서 류예칭의 시신을 찾았다. 류예칭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가족들은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동생은 "주사를 잘못 놓아도 의사라면 일단 사람을 구해야 하지 않았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정리=조선미기자

모든 밀폐 공간 담배 못피운다

metro Brazil

상파울루 금연법 개정

브라질 상파울루 위생의회가 최근 실내에서 담배를 피는 흡연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상파울루 주 내에 위치한 모든 밀폐 공간에서는 담배, 시가, 파이프 등 어떠한 종류도 흡연할 수 없다.

알렉스 마넨치 위원의원이 발표한 전문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2009년부터 시행된 법안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기존 법안에서는 상가나 식당 등의 상업시설에서만 금연을 해야 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상업적 목적의 건물 외에도 모든 밀폐된 공간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만약 이러한 공간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201.40 헤알(9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16일(현지시간) 터키 마니사의 탄광 폭발 현장에서 사고 수시간 후 한 광부가 구조돼 나오고 있다. /AP 뉴시스

터키 탄광폭발 사망자 200명 넘어

수백명 갇혀 희생자 크게 늘듯…최악 참사 우려

터키 서부 마니사주 소마의 탄광에서 13일(현지시간) 발생한 폭발 사고의 사망자 수가 200명을 넘어섰다.

타네르 이을드즈 에너지 장관은 "14일 오전까지 201명이 사망하고 80명이 다쳤다"며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 중독이 주요 사망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폭발 당시 탄광 안에서 787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희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구조대원 등 400명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363명이 구조됐다. 당국은 폭발이 탄광 입구로부터 2㎞ 지점에서 발생했고, 광부들은 지하 2㎞ 지점에 갇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폭발은 지하 2㎞ 지점에 있는 전력공급장치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이 탄광이 2개월 전 안전점검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판정받았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광부는 AFP 통신에 "이 탄광에는 안전장치가 없었다. 노동조합은 회사 말만 들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263명이 숨진 1992년 흑해연안 탄광사고 이래 터키에서 일어난 최악의 탄광사고로 기록될 전망이다. /조선미기자

美 ‘메르스 공포’ 확산

미국 플로리다주 병원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환자가 잇따라 보고돼 보건 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병원 측은 13일 메르스 환자를 돌보던 직원 2명이 호흡기 질환과 유사한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올랜도의 필립스 병원과 플로리다 주정부는 미국에서 두번째 감염 사례로 보고된 44세 남성을 치료 중이다. 이 환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주하는 보건업계 종사자다. 올랜도에 사는 가족을 만나러 이달 초 영국 런던과 미국 보스턴, 애틀랜타를 경유해 입국했다.

환자가 마지막으로 비행기를 갈아탄 애틀랜타 국제공항은 세계에서 항공 이용객 수가 가장 많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메르스 바이러스가 미 전역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조선미기자

market index <14일>

코스피 2010.83 (+27.60)	코스닥 550.50 (+3.14)
금리 2.85 (-0.01)	환율 1025.50 (+3.50)

뉴스&뉴스

원양산 오징어가 단돈 천원 롯데마트가 14일 중구 봉래동 서울역점에서 오징어, 꽁치, 갈치 등 원양산 수산물을 시중가 대비 40% 가량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상대로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간단하게 자신이 환급 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치가 대상이다.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안전행정부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 국세는 물론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김민지기자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

● 오는 11월부터 연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이 카드사에 내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연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내리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김민지기자

연금복권520 제150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 20년	2조	509592
		5조	182023
2등	1억원	1등의 전후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300163
4등	100만원	각조	46170
5등	2만원	각조	233
6등	2000원	각조	51
7등	1000원	각조	4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수표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851
발행인 겸 대표이사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종희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552-2800
독자센터 02)721-9886
2002년 5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000

4월 취업자 58만1000명 늘어… 증가폭 둔화

4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50만명대를 기록하며 2개월째 증가 폭이 둔화됐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568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8만1000명 증가했다.

1월 취업자 수가 70만5000명, 2월에 83만5000명, 3월 64만9000명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증가 폭이 2개월째 둔화됐지만, 기본적으로 60만명선의 증가 폭은 고용시장 회복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월 실업률은 3.9%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실업자 수는 103만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5000명(24.9%) 증가했다. 이 중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포인트 올라갔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로 본 고용률은 60.6%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남자는 71.7%, 여자는 49.4%로 전년 동월대비 각각 0.7%포인트와 0.9%포인트 높아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 들어 연이어 50만명대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 폭을 보이고 있으며 1~2월의 명절효과가 사라진 3~4월에도 계속 증가세라는 것이 긍정적"이라면서 "고용동향 조사 주간에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만큼 고용 지표에 직접적인 영향이 감지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단비기자

삼성, 백혈병 사과… "보상하겠다"

3세 경영승계 수순… 긍정여론 도움될 듯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당사자와 가족에게 사과와 함께 합당한 보상을 약속했다. 재계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3세 경영으로의 원활한 체제 전환을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14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진작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투병 중이거나 사망한 직원의 가족과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지난달 제안한 내용에 대해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피해가족과 반올림, 심상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전자 측의 공식 사과 ▲직업병 피해자 및 가족과의 합의를 통한 객관적인 제3의 중재기구 구성 및 중재기구에서 마련한 합당한 방안에 따른 보상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취급 현황, 안전보건관리 현황 등에 대한 종합진단 실시와 직업병 재발방지 대책 수립 ▲산업재해 인정기준 완화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그동안 "반올림측이 당초 합의한 내용이 아닌 직접 협상을 요구하는 등 입장을 번복해 혼란스럽다"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던 삼성전자가 돌연 한 달여만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 것에 재계에서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의 후계 구도 작업을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의 이번 조치는 후계 작업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들을 사전에 없애자는 취지에서 나온 게 아니겠느냐"며 "사회여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의 부재 속에서도 삼성그룹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수요 사장단 회의도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비롯한 그룹 수뇌부와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최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회장님 병세는 안정적 회복 추세에 있다"며 "임직원 모두 회장님의 쾌유를 바라는 마음으로 근신하고 사장단은 흔들림없는 경영과 함께 사건·사고 예방에 한층 더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각종 재난 사고가 발생하자 재난 대피훈련도 했다. 삼성그룹은 13일과 14일 전국 계열사 사옥과 주요 사업장 등 250여 곳을 대상으로 1시간 가량 재난 시고 대피훈련에 들어갔다. 훈련 내용은 건물 층별 비상구 위치를 파악해 긴급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순수 치즈로 만든 빵이에요 CJ 푸드빌 뚜레쥬르가 14일 서울 중구 퇴계로 CJ 제일제당센터에서 신제품 '순치즈'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하반기 코스피 2200까지 간다"

신한금융 경제전망… 성장률은 3.8% 그칠 듯

하반기 국내 주식시장이 3분기 조정을 거쳐 4분기 상승하는 한편 코스피도 최고 220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신한금융투자는 14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하반기 국내외 금융시장 및 주요 산업 전망'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경수 신한금융투자 투자전략팀장은 "양적완화 종료와 금리 인상 논쟁 등이 부담으로 남아있지만 4분기 '매크로변수가 '유동성'에서 '경기'로 이동하면서 지수가 상승국면을 형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팀장은 "기업 이익도 4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서고 특히 유틸리티, 건설, 은행, 태양광 업종이 턴어라운드를 주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스피 밴드는 1800~2200포인트를 제시했다.

현재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저물가·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창용 매크로 팀장은 "성장 동력을 확보할 한국경제의 새로운 버전으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와 수출이 균형잡힌 경제를 제시한다"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 개혁 ▲사회안전망 강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8%, 원 달러 환율은 연평균 1050원을 예상했다.

양기인 리서치센터장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미국의 통화완화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하반기는 그 어느 때보다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을 통한 수익률과 위험관리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기자 alive0038

당국, 러시앤캐시 점검

제도권 진출 후 첫 사험대

러시앤캐시로 알려진 대부업계 에이앤피파이낸셜그룹이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금융당국의 정기 점검을 받을 전망이다. 러시앤캐시가 저축은행 인수를 앞둔 상황이므로 시장에서는 대부업계가 제도권 금융에 진출한 뒤 처음 받는 점검 결과라는 점에 관심을 표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대부업체들이 고객 정보를 유출했는지를 전반적으로 검사할 의지도 밝혔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 러시앤캐시에 검사역을 투입해 종합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업체에 대해 2~3년마다 정기 검사를 시행하므로 이번 점검도 정례적인 성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러시앤캐시의 저축은행 인수가 결정된 후 이뤄질 것이라며 "여자율과 중개수수료 등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됐는지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영업행위에 주 초점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앤캐시는 이번 주 예주·예나래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사업계획서와 주식취득승인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현정기자 h.kim1@

라이나생명
암보험 없는 61~80세를 위한
100세 보장
암보험!

환율파고 한국 경제 '먹구름'

달러에 이어 엔까지 급락…정부 적극 대응 나서

한국 경제가 환율 급락으로 먹구름에 휩싸였다.

원화 가치가 강세를 띠면서 지난 13일 원·엔 환율이 100엔당 900원대로 다시 주저앉았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엔 환율은 100엔당 997.41원으로 마감했다. 전날보다 100엔당 5.40원 떨어지면서 1000원선이 깨졌다. 원·엔 환율이 900원대로 내려온 것은 올 1월 2일(997.44원) 이후 4개월여 만이다. 14일 원·엔 환율은 다시 100엔당 1000원대로 회복했다.

이처럼 원·엔 환율이 떨어진 것은 원화 강세가 주된 원인이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글로벌 증시 강세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데다 국내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이 겹쳐 원화가치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신경제연구소는 "당분간 원·엔 환율이 1000원선 근방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원화 강세가 계속되는 이상 향후 900원대서 연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원·엔 환율이 1000원선 밑으로 하락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급속도로 약해졌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시장 역시 낙관하기 어렵다.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은 올해 1분기 3.0%로 지난해 2분기 12.5% 이후 4분기 연속 둔화됐다. 올해 1~4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가운데 중국 비중은 24.9%에 머물렀다.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다소 안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대외리스크 요인이 잠재돼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공·민간부문의 리스크관리 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또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수출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지기자 min@metroseoul.co.kr

서울·세종 영상 경제관계장관회의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4일 서울과 세종 간 영상으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 참석한 장·차관들이 현 부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수익형부동산 '희비 교차'

마곡 오피스텔, 위례 상가, 제주 호텔 '인기'

한때 오피스텔로 대변되던 수익형부동산 상품이 다양화되면서 지역에 따라 공급 양상도 다르고 있다. 지역에 따라 임대수요가 다르게 형성되면서 선호하는 부동산도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같은 수익형부동산이라도 마곡지구에서는 오피스텔이, 위례신도시에서는 상가가, 제주도에서는 분양형 호텔이 인기다.

이 중 마곡지구는 서울 강서구 마곡·가양동 일대 366만5000㎡ 규모로 조성되는 서울의 마지막 대단위 택지지구다. LG컨소시엄, 코오롱컨소시엄, 대우조선해양, 이랜드, 롯데컨소시엄 등 55여 개 기업체의 입주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이들 업체가 모두 들어서면 4만여 명의 종사자와 18만여 명의 연간 고용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이같은 풍부한 배후수요 덕분에 마곡지구는 오피스텔이 투자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총 10개 곳에서 분양된 오피스텔은 모두 주인을 찾았고 올해 첫 분양한 '마곡대원 투웨니퍼스트'는 분양을 시작한지 15일 만에 100% 계약을 마감했다. 올해 추가로 '마곡나루역 일성 트루엘플래닛'을 비롯해 총 3개 사업지에서 2788실이 공급될 예정이다.

위례신도시는 아파트에 이어 상가가 뜨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 공급에 따른 입주민 고정수요가 기대되는 만큼 공급되는 상가부지와 상가마다 대박을 치는 양상이다.

LH가 최근 분양한 A1-11블록과 A1-8블록 단지 내 상가의 평균 낙찰가율은 각각 214%, 190%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별내신도시나 서초보금자리지구의 상가 평균 낙찰가율 109~184%를 웃노는 수준이다.

새로운 수익형 부동산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한 분양형 호텔은 제주도가 강세다. 제주도는 누적 방문객이 10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찾는 이들이 늘면서 호텔을 이용하는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이다.

/이선옥기자 iro0820@

징계 예고에도 성과급 챙겨

김종준 하나은행장 도덕성 논란

김종준(사진) 하나은행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확정받기 직전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지난달 17일 그룹 계열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주식연동 성과급(stock grant)을 일괄 지급했다.

당시 김 행장을 비롯한 하나은행 임원 50여명은 50억원을 2011년 경영 실적에 따른 성과급으로 현금 지급받았다.

이를 두고 김 행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것.

앞서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 회장의 지시로 옛 미래저축은행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지난달 17일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하나금융 내규상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이사회 의결로 성과급이 절반까지 깎이지만, 김 행장은 당시 중징계가 확정 통보되지 않아 온전한 지급이 가능했다.

이에 대해 김 행장 측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성과급 수령"이라며 "징계를 염두에 두고 지급 시기를 조절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백아란기자

3D 프린터로 만들었어요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듀 사비나미술관에서 3D프린팅 & 아트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대림화학이 협력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3D 프린터로 출력한 창작물들과 설치미술, 사진, 그림, 조각 등 60여 점을 볼 수 있다. /뉴시스

중국인 관광객 역시 큰 손

국내 카드이용액 83% 증가…쇼핑 61%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의 카드사용금액이 전년대비 82.7%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신한카드는 2013년 외국인 신용카드 국내사용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같은 기간 외국인이 국내에서 이용한 카드 이용액 합계는 7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3.8% 증가했다.

국가별로 국내사용금액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이 절반에 가까운 48.1%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일본이 18.5%, 미국 9.5%로 뒤를 이었다.

중국인의 국내카드사용금액 증가현상은 특히 쇼핑센터나 백화점 등 쇼핑업종에서 평균 61.0%에 달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밖에도 스키, 골프 등 스포츠업종과 미용, 의료 등에서 중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평균 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창훈 신한카드 빅 데이터 마케팅팀 부장은 "이번 분석결과 중국인들은 스포츠와 문화 등 체험을 중시하는 자유여행객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과 업종에서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료부문과 가전구매 등이 고액결제 성향을 보이고 있어 관련 업계는 중국인들의 다변화된 국내소비 트렌드를 감안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외국인 이용업종 중 전년대비 증가율이 높은 업종은 스포츠 부문으로 103.2% 늘어났다.

지역별 외국인 방문 비중을 보면 서울(67.6%), 경기(6.7%), 인천(5.7%) 순으로 나타났다. 5순위인 제주(3.6%)는 중국관광객 호황으로 전년보다 54.7%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은 "외국인들의 카드이용 빅데이터 분석을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정책 개발에 활용해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며 "공익차원에서 관계당국의 통계데이터와 연계해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의 매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재찬기자

국토부 홈피 항의 댓글 '봇물'

르노삼성차 SM5 카페, 집단 소송 서명 나서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가 SM5의 공식 리콜을 지시했으나 이번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SM5 오너들은 국토부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다음(DAUM) 아고라 청원 게시판에 르노삼성자동차의 부당한 조치를 알리는 글을 올리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코너에는 국내 완성차의 리콜 소식이 실린다. 4월 21일 올라온 르노삼성 SM5의 리콜 자료에는 항의성 댓글이 무려 200여개나 달려 있다. 단일 차종의 리콜 소식에 이렇게 많은 항의 댓글이 달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양정호 씨는 댓글에서 "리콜이라면 당연히 개선품으로 바꿔줘야 하는데 왜 있던 부품을 잘라내고 직결 조치를 하느냐"면서 "이 조치 후 문제가 생겼을 때 국토부가 책임질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부품 교체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르노삼성 SM5 카페 운영자는 "하네스 커넥터 직결이 위험하다는 항의를 르노삼성 측에 냈으나 회사 측에서는 안전하다는 말만 하고 문서로 보장할 수는 없다고 했다"면서 "리콜 로 문제가 생기면 폐차할 때까지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 역시 문서로 보장할 수는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 홍보팀 관계자는 "그 차량들은 점화코일과 엔진 배선이 너무 짧아서 문제가 됐다"면서 "개선된 차량들은 배선을 길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배선은 직접 연결됐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커넥터는 배선을 연결해주는 것 외엔 특별한 역할이 없기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르노삼성 SM5 카페는 현재 다음 아고라 청원 게시판(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2622)에 집단 소송제로 보상받자는 제안을 올린 상태다. 14일 현재 858명이 서명했으며, 마감까지는 18일이 남았다.

/박상길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14일 일본 동경 오쿠라 호텔에서 열린 '한일 경제인회의'에서 허창수(왼쪽에서 둘째) 전경련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일 4세대형 경제협력을"

허창수 전경련 회장 경제인회의 기조연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14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46회 한·일 경제인회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내년 6월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기적의 50년을 넘어 희망의 100년을 여는 새로운 경제협력 비전과 4대 실천전략을 제시했다.

허 회장은 우선 한국 기업·산업 간 협력이 기술을 이전받거나 투자를 유치하는 형태의 1세대형 협력과 중국 부상 이후 동북아 산업내 분업관계인 2세대형 협력을 거쳐 선의의 경쟁과 협조를 통한 3세대형 관계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허 회장은 "서로의 장점을 결합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와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4세대형 경제협력 관계로 도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차세대에너지·스마트카·스마트시티 등 신산업에서 공동표준화과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EU 공동연구프로그램인 유레카와 같은 프로그램을 양국 지원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신흥시장에서 양국 기업간 과다한 경쟁과 불필요한 중복투자 등 비효율이 발생하는 만큼 한·일 간 경합구조를 건설적 협력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회장은 또 한·중·일 간 아시아·태평양 역내 경제통합 가속화를 위한 상설 민간기구 발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EU '비즈니스 유럽'을 벤치마킹해 일본 경단련이 주도하는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의 확대 발전을 제안했다.

허 회장은 이밖에 "통일에 대한 한국 정부와 기업, 국민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히고 향후 통일준비과정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데 일본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요청했다.

허 회장은 끝으로 과거사 문제로 양국 국민 사이의 호감도가 현저히 낮아진 점에 관해 우려를 표시하고, 양국 협력의 주체가 국민인 만큼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일축제한마당에 대한 꾸준한 지원과 양국 기업 간 인턴십 공유, 대학간 공동학점이수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뉴질랜드 키위 맛보세요 뉴질랜드 키위 브랜드 제스프리가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 앞에서 뉴질랜드 그린키위와 골드키위의 출하를 알리는 소비자 시식행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트리트형 상가 '강남역 센트럴애비뉴' 분양

대한민국 최고 상권이자 유동인구 1위인 강남역 인근에 '강남역 센트럴애비뉴' 상가가 분양 중이다. 최근 5년간 이 일대에서 공급된 오피스텔 중 최대 규모인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 단지 상가로 연면적 1만3000여㎡에 점포수만 116개에 달한다.

강남역 1번 출구와는 불과 34m 거리에 있다. 주변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시선형 도로를 통해 전면부를 전면도로에 접하는 효과를 낸 4면 개방 스트리트형 상가로 이뤄졌다. 또 테헤란로에 입면이 노출되는 입지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강남역 센트럴 애비뉴 조감도.

강남역의 풍부한 유동인구를 비롯해 오피스텔 입주민, 주변 기업들의 직장인 등 고정수요 확보가 기대된다. 분양사무실은 강남역 7번 출구 앞에 마련돼 있다. 2015년 3월 입점 예정이다.

문의 02-583-3880

/서승욱기자 [illegible]

최대 100세까지 보장

라이나 무배당 실버암보험

라이나생명보험이 고령자 대상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의 가입연령을 80세로 확대했다.

가입 나이에 제한 또는 인수기준을 완화해 실버암보험 상품을 다시 출시했다. 라이나생명은 2012년 7월 국내 최초로 고령자 전용 암보험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 상품을 출시했었다.

이 상품은 고령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고혈압, 골다공증 같은 노인성질환에 대한 무심사를 적용해 고령자들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 상품으로 고안됐다.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은 61세에서 80세까지의 고령자들이 가입 가능하도록 고안된 10년 만기 암보험 상품이다. 10년 단위로 갱신하여 최대 10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일반암(유방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 치료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도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400만원을 보장 받는다.

지난해 500대 기업 실적 '속빈 강정'

매출정체 당기 순익 12%로 급감…5대 그룹 편중 심화

국내 500대 기업의 실적침체가 장기화되고 대기업 편중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7%로 다소 성장세를 보이던 매출 증가율이 지난해 1%대로 떨어졌고, 당기순이익은 -8%에서 -12%로 하락폭이 더욱 커졌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IT·전기·전자 이외의 나머지 업종 순이익이 대부분 감소했다. 특히 최근 구조조정이 한창인 금융권과 한국 경제를 견인하던 조선·기계·설비, 석유화학, 건설 등 중후장대형 업종의 순이익은 20조 원 가까이 사라졌다. 이와 함께 상위 5대 그룹으로 의존도가 심화됐고, 하위 기업의 실적 지표는 일제히 하향곡선을 그렸다.

14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2013년 결산자료를 토대로 매출액 기준 국내 500대 기업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 총액은 2633조9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 늘었지만 당기 순이익은 86조900억 원으로 12% 줄었다. 영업이익도 140조1100억 원으로 2.4% 감소했다.

작년 500대 기업 실적과 비교하면 매출 증가율은 7.2%에서 1.6%로 낮아졌고, 당기순이익은 -7.8%에서 -12.0%로 감소폭이 커졌다.

대기업이 수익성 방어를 위해 '허리띠 졸라매기'에 적극 나섰지만 영업이익 증가율은 4.4%에서 2.4%로 감소폭만 다소 줄었을 뿐 마이너스 성장은 면치 못했다.

업종별로 삼성전자의 호조에 힘입은 IT·전기·전자와 생활용품, 제약 등 일부 내수 업종만 순이익이 늘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19개 업종 중 12개(63%)의 순이익이 줄었다.

순이익 감소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증권분야다. 500대 기업에 포함된 15개 회사의 지난해 순이익은 3700억 원으로, 전년 1조1300억 원보다 67% 줄었다.

E1·SK가스 등 에너지 업종이 -42.9%(기업 수 22개)로 증권에 이어 2위에 올랐고, 은행(13개, -39.6%)→석유화학(48개, -32.6%)→보험(29개, -20.9%)→식음료(31개, -16.8%)→여신금융(10개, -16.2%)→통신(3개, -15.6%) 순으로 순이익 감소폭이 컸다.

대기업 편중 현상도 더욱 두드러졌다.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상위 5대 그룹의 500대 기업내 기업 수는 91개로 전체의 20%에 미치지 못하지만, 매출 비중은 배가 넘는 40.5%에 달한다.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3%로 86조 원의 순이익 중 69조 원이 5대 그룹의 몫이다. 전년과 비교해도 각각 1%포인트, 14%포인트 높아졌다.

5대 그룹을 제외할 경우 500대 기업의 매출은 0.1% 줄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14.5%와 -48.5%로 감소율이 커진다.

실제 30대 그룹 중 두산과 신세계 등 5곳을 제외한 5위권 밖 20곳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줄었다. 이중 한진, OCI·대우건설은 적자 전환했다. 또 19개 그룹의 당기순이익이 줄었다. 한진은 적자가 확대됐고, 현대중공업, GS, OCI, 대우건설은 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다. 영업이익률 역시 5대 그룹이 7.7%로 하위 기업(3.7%)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김태균기자 ksg11@metroseoul.co.kr

중기 임금, 대기업의 53%

취업 미스매칭 주원인

지난해 중소기업의 1인당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14일 통계청 국가주요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상시종업원 300명 미만)의 임금은 대기업(300명 이상)의 52.9% 수준이다. 대기업 직원이 임금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면, 중소기업 직원은 2645만원을 받았다는 의미다.

이 비율은 2001년 이후 소폭의 등락은 있지만 하락 추세다.

통계청은 "기업 규모별 임금 소득의 양극화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의 직원 중에서도 연구인력의 임금 격차는 더 두드러진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중소기업 연구인력의 평균 임금은 3304만원으로, 대기업(7250만원)의 46% 수준에 그쳤다.

대·중소기업 간 직원 임금이 이처럼 차이나는 것은 근로자의 학력, 성별 등의 변수를 통제하지 않고 기업의 규모로만 두 집단을 나눴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낮은 임금과 부족한 복리후생 등의 이유 때문에 중소기업 인력(이공계)의 이직률(16.8%)은 대기업(9.0%)의 두 배 가까이 된다. 중소기업의 57.0%는 최근 3년간 핵심 인력의 이직으로 인해 경영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대·중소기업 간 큰 임금 격차는 청년 구직자들의 대기업 선호 심리를 부추겨 '취업 미스매치' 현상을 낳았다. 중소기업이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상황에서 구직자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호소하는 역설뿐이다. /세종=송주성기자 (이름)

브라운관TV 재생 친환경 길 조성 삼성전자는 폐 브라운관TV를 보도블록으로 재생해 수원 축구 전용구장 앞에 친환경 길을 조성하는 승리 기원의 길 'TV로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4일 전했다. /삼성전자 제공

SK텔레콤 '동반성장 웹진' 창간

SK텔레콤(대표 하성민)은 중소 협력사와 소통과 상생 강화를 위한 '동반성장 웹진'을 15일 창간한다고 밝혔다.

동반성장 웹진은 중소 협력사의 요구를 반영해 SK텔레콤 동반성장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상생 사례, 전문 시장 분석 리포트 등 정보를 담아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발간될 예정이다.

웹진은 SK텔레콤과 거래 관계가 있는 중소 협력사들에 메일 형태로 제공되며 상생협력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창간호에는 이동통신사의 자세대 모바일 전략과 해외 비지니스 환경에 대한 전문적 분석, 인문학 칼럼 '오케스트라를 통해 본 레오니', 협력사 소개 등 소식을 담았다.

특히 이번 호에는 올해 초 새롭게 론칭한 중소 협력사 대상 SK텔레콤 '동반성장 복지지원 프로그램'이 상세히 소개됐다.

여호령 SCM실장은 "동반성장 웹진 창간은 협력사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상생 협력의 기반이 되는 소통 채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자동차 복원 기술, 국비로 배운다

자동차 광택과 유리막 코팅, 덴트(외형)복원 기술을 국비지원을 통해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직업전문학원인 한국자동차내외장관리학원이 서울 강서구에 문을 열었다. 이 학원이 주목받는 이유는 자동차 관련 사업의 성장세와 그 가능성 때문이다.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000만 대를 돌파하면서 자동차 관련 직종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시장진입이 쉽고 안정적인 자동차 외장 관리 사업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자동차 내외장관리분야는 자동차광택, 유리막 코팅, 덴트 복원, 외형 복원, 라이트 복원, 실내 클리닝, 흡연 제거 등을 다루는 아이템이다. 이런 자동차내외장관리 분야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한국자동차내외장관리학원은 고용노동부와 교육지원부의 공식인가를 받아 국비 무료교육을 실시, 자동차 관련 시장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내외장관리학원은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창업과 성공적인 취업을 이끌고 있다.

이 학원의 과정을 수료한 한 교육생은 "학원에서 이론적인 부분만 알려주는 줄 알았는데, 실기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만족스러웠다"면서 "모든 원생들이 각각 개인 장비를 가지고 수업 받을 수 있게 해주었고 더 빠른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면서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국자동차내외장관리학원의 국비지원무료교육 대상자는 실업자, 주부, 자영업자, 야간대학졸업예정자 등이며 선착순 25명을 모집한다. 직장인반도 개설됐다. 문의 (02)3663-0117 인터넷 홈페이지(kca2000.com)

'조셉조셉'의 최고경영자(CEO) 앤토니 조셉(왼쪽)과 리처드 /BBC 제공

'접히는 도마' 내놔 지구촌 부엌 접수

영국 주방용품 전문업체 쌍둥이 형제 성공 비결

글로벌 이코노미

접히는 도마로 전 세계 주방용품 시장을 휩쓴 영국의 쌍둥이 형제 리처드와 앤토니 조셉(39). 최근 영국 BBC 방송이 이들의 성공 비결을 공개했다.

이들은 주방용품 전문업체 '조셉조셉'의 최고경영자(CEO)와 디자인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란성 쌍둥이로 외모는 물론 성격도 다르다. 형제는 둘이 사업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요리에도 별 관심이 없었다. 유리 가공 업체를 운영하던 아버지의 일을 돕다가 한 배를 타게 됐다. 부친의 회사에서 기본기를 닦은 형제는 결국 독립해 2003년 '조셉조셉'을 차렸다.

리처드는 경영 총괄 매니저로 회사의 살림을 꾸리며 직원들을 챙기는 역할을 맡았다. 앤토니는 디자인 총책임자로 실용적이면서도 독창적인 제품 디자인 개발을 진두지휘한다. 두 사람은 환상적인 팀플레이로 획기적인 제품을 선보이며 주방 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몰고 왔다.

특히 최고 히트 아이템으로 꼽히는 접히는 도마는 세계 각국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기존의 평평한 도마와 달리

접고 펼치면서 재료를 모아 그릇에 부을 수 있는 편리한 도마의 등장에 주부들은 열광했다.

도마를 비롯해 그릇과 계량컵 등이 날개 돋친 듯 팔리면서 지난해 조셉조셉의 매출은 3560만 파운드(약 612억원)에 달했다. 현재 조셉조셉은 세계 105개국에서 제품을 판매하며 회사 매출의 78%를 해외에서 벌고 있다.

리처드는 "디자인이 영국 스타일이 아니라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지구촌 스타일이라 좋은 호응을 얻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계속해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쉽지 않다"며 "신제품 개발은 진정한 창작의 고통"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2018년 베이징 신공항 선다

14조원 투입…도심 남쪽 46㎞ 지점

중국 베이징에 신공항이 들어선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붐비는 베이징 공항의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140억 달러(약 14조3000억 원)를 들여 신공항을 짓는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8년 개장될 신공항은 도심에서 남쪽으로 46㎞ 지점에 위치할 예정이다. 1차로 활주로 4개를 갖춰 현재의 공항과 비슷한 규모의 승객을 수용하고 필요에 따라 활주로 3개를 추가할 계획이다.

지난해 베이징 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8370만명이다. 이는 미국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한편 중국 정부의 환경 영향 보고서는 2020년까지 연간 1억4200만 명이 베이징을 통해 여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 역시 2012년에서 2023년 사이 중국의 항공 승객이 네 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국명기자 kmlee@[illegible]

스마트폰 영상 거실TV로 크게 본다

구글 미디어 스트리밍 기기 '크롬 캐스트' 특정 콘텐츠에 제한… 종속 우려 시각도

디지털 모바일 라이프가 또 한번 진화한다. 스마트폰에 있는 동영상이나 사진, 문서 등을 TV에서 쾌적하게 볼 수 있게 하는 똑똑한 기기가 등장했다.

구글코리아는 14일 PC, 스마트폰, 태블릿의 온라인 콘텐츠를 TV에서도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미디어 스트리밍 기기 '크롬캐스트'를 출시했다.

엄지손가락 크기의 이 기기를 TV의 HDMI 단자에 꽂고 무선인터넷과 연결하면 내 손에 있는 기기에서 보던 영화, 유튜브 영상, 음악, 사진, 문서 등 다양한 콘텐츠를 거실에 있는 대형 TV 화면에서 볼 수 있다.

이 제품의 미덕은 간단하다는 점이다. 복잡한 설치과정이나 사용법을 배울 필요가 없다.

재생, 정지, 볼륨 등도 별도의 리모콘 없이 같은 와이파이망에 접속한 모든 기기에서 조절할 수 있다. 거실 TV에서 영상을 보다가 다른 방으로 이동할 때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끊김 없이 이어서 볼 수 있고 HDMI 연결과 달리 클라우드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TV 화면 크기에 적합한 영상과 사진이 자동으로 뜬다.

크롬캐스트는 안드로이드 기반 모바일 기기뿐 아니라 아이폰과 아이패드와도 연결할 수 있고 PC 환경에서는 윈도, 맥OS, 리눅스 등의 운영체제에서도 크롬 브라우저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유튜브, 구글플레이 무비, 티빙이다 호핀 등 크롬캐스트를 지원하는 모바일 앱이라면 '캐스트 버튼'만 누르고 곧바로 TV에서 볼 수 있다.

PC에서는 크롬 브라우저에 '구글 캐스트'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해당 버튼을 누르면 현재 보고 있는 웹 화면도 TV에서 볼 수 있다.

다만 크롬캐스트의 이같은 기능은 PC나 태블릿에 있는 개별 동영상을 TV에 띄우는 '미러링'과는 차이가 있다. 크롬캐스트를 지원하는 스트리밍 미디어 플레이어를 거쳐야만 TV에서 감상할 수 있다.

TV에서 동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모바일 기기의 배터리 손실이 없으며 멀티태스킹을 지원하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로 다른 작업을 하거나 잠금화면으로 전환해도 영상 재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 더욱 편리하다.

크롬캐스트는 구글플레이를 포함해 롯데하이마트, G마켓, 옥션에서 4만9900원에 장만할 수 있고 국내 출시 콘텐츠 파트너는 티빙과 호핀이다.

크롬캐스트의 상륙으로 구글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글로벌 검색 광고 시장을 평정한 구글이 모바일 OS에 이어 미디어를 연계하는 기기까지 장악할 경우 관련 콘텐츠 산업이 구글에 종속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IT업계 관계자는 "티빙, 호핀, 유튜브의 콘텐츠가 아니면 TV에서 보기 어렵다는 얘기인데 구글에 줄을 서려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LG전자 '그램' 얼마나 가벼울까 LG전자가 다음달 15일까지 980g에 불과한 울트라PC '그램'의 초경량 무게를 영상으로 체험하는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홈페이지(lg-gram.co.kr)에 있는 에피소드 영상을 보고, 별점을 매기거나 더 좋은 아이디어를 SNS계정으로 응모하면 된다. /LG전자 제공

'엑스박스 원' 키넥트 빼고 10만원 내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콘솔 게임기 '엑스박스 원'(사진)의 가격이 약 10만원 인하된다.

경쟁 제품인 소니 플레이스테이션4(PS4)에 비해 판매량이 떨어지는 만큼 기존 패키지에서 동작 인식 카메라 '키넥트'를 제외하고 판매가격을 499.99 달러(51만1000원)에서 399.99 달러(40만9000원)로 내리는 것이다.

MS는 다음달 9일부터 엑스박스 원이 판매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14일(한국시간) 밝혔다.

MS는 이와 동시에 키넥트가 빠진 399.99 달러짜리 엑스박스 원 기본 세트에 대한 예약 주문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받기 시작했다.

MS는 또 '엑스박스 라이브 골드'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엑스박스 360이나 엑스박스 원으로 타사 스트리밍 서비스를 볼 수 있게 한 정책을 폐지했다. 경쟁 제품인 PS4 등은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엑스박스 사용자들은 MS에 별도 연회비 60달러(6만1000원)를 내지 않더라도 넷플릭스, 훌루 플러스, 유튜브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엑스박스 원의 전세계 누적 출하량은 지난달 500만대였는데 이는 PS4에 비해 200만대 이상 뒤지는 것이니 또 최근 몇 달 사이에 판매량 격차가 더 벌어지는 추세다. /박성훈기자

IT도 인문학이다
/박성훈기자 zen@

제4의 물결은 모바일 혁명

삶의 수준에서 본다면 인류의 조상들은 늑대와 큰 차이가 없다. 나무 열매를 따거나 동물을 사냥해 먹고 동굴과 같은 자연적인 구조물에서 기거했다.

그런데 BC 7000년 무렵 보리, 밀 등의 곡류를 재배하고 소, 돼지와 같은 가축을 사육하면서 농업사회를 열었다. 농업혁명이자 '제1의 물결'이다.

이러한 물결에 시사하는 바는 사람들이 정착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동굴에서 나와 움지에 움막을 짓고 사람들과 함께 마을을 이뤘다. 머무르면서 재배·사육을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크게 늘었고 인구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잘 먹고 잘 자고 질병 수비가 가능해지면서 수명도 늘어났다.

1760년대 후반과 1800년대 초, 방적기, 증기 기관차와 같은 새로운 물건들이 등장했다. 산업혁명이자 '제 2의 물결'이다. 농부는 공장 근로자가 되고 집안에서 살림만 하던 여성들도 취직을 하기 시작했다.

공장과 도시가 몰리면서 거대 도시가 만들어졌고 대량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이 정착된다.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보, 전화, 라디오, TV가 출현한다. 이른바 정보통신 혁명이자 '제3의 물결'이다.

특히 이동통신과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는 노동, 자본, 토지가 아닌 정보와 지식이 부자를 만드는 세상이 됐다.

그렇다면 '제 4의 물결'은 무엇일까? 세 차례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음을 감안하면 뭔가 폭발적이고 획기적인 패개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농업-산업-정보 혁명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보면 뜻밖의 통찰을 마주할 수 있다. 각각이 다음 혁명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디딤돌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농업 혁명으로 인구가 늘고 마을이 생기면서 대량 생산의 니즈가 생겼다. 이는 곧 산업혁명으로 이어졌고 공장에서 찍어내는 똑같은 물건들은 서서히 상품성이 떨어졌고 차별화된 물건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보와 지식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그렇다면 제4의 물결은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 '빙산의 일각'일지라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다.

메리시 메이어 야후 CEO는 최근 "연말에는 모바일 이용자가 데스크톱 이용자를 추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지식사회가 모바일을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집이나 회사에서 PC가 사라질 수 있다.

인류가 지구를 버리고 달이나 화성으로 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제4의 물결'의 유력한 후보자는 모바일 혁명이다. 우리는 인류의 삶을 또 한번 바꿔놓을 새로운 물결을 맞을 준비가 돼 있는가.

게임으로 내 꿈 펼쳐볼까

넥슨, 넥슨지티 인턴 모집

넥슨과 넥슨 계열사인 넥슨지티가 26일까지 여름방학과 2학기 인턴사원을 공개 모집한다.

넥슨의 여름방학 인턴 모집 분야는 게임 기획, 아트, 사운드, 사업, IT엔지니어, 웹 기획·디자인, 해외사업, 사회공헌, 인사·교육 등 10개 분야다. 2학기 인턴사원은 게임기획과 아트 등 2개 분야에서 모집한다.

넥슨지티는 1인칭 슈팅게임 '서든어택'의 서버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2학기 인턴을 채용한다.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으로 게임업계 직무에 관심이 있다면 넥슨 컴퍼니 채용 홈페이지(career.nexon.com)로 지원하면 된다. 합격자는 다음달 18일 발표한다. 채용될 경우 여름방학 인턴은 다음달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2학기 인턴은 12월 22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김국배기자 kmkb@

서울 근교 바비큐장 어디가 좋을까

난지 캠핑장부터 다하누AZ쇼핑까지… 매력 알아본다

나들이와 캠핑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가격부담이 적고 복잡한 준비도 필요하지 않은 알짜배기 바비큐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 근교에서 만날 수 있는 매력 만점의 바비큐장을 소개한다.

◆빈 손으로 와서 즐기는 바비큐

먼저 축산물 종합 쇼핑센터 다하누AZ쇼핑은 나들이 시즌에 맞춰 각종 보양을 즐길 수 있는 무료 차율 바비큐장을 오픈했다.

AZ쇼핑 관교점과 동탄점에 마련된 바비큐장은 아무 준비 없이 매장을 방문해 바비큐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곳. 매장 내에서 채소, 쌈장 등을 비롯해 그릴, 숯, 가위, 집게 등 바비큐 용품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또 인근 식당과도 연계해 소비자들이 고기를 구매한 후 근처 식당에서 상차림 비용만 내고 바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매주 수요일에는 한우 한마리 반값 할인 행사를 비롯해 1000원 경매, 사골 무게 맞히기 등의 이벤트가 진행된다.

◆캠핑 즐길거리 가득 '난지 캠핑장'

서울에 생긴 최초의 캠핑장으로 한강 시민공원 시설 중 하나인 난지 캠핑장은 바비큐 파티와 함께 캠핑까지 가능한 서울의 명소다.

취사가 가능한 피크닉장에는 90개 가량의 테이블이 마련돼 있으며 캠핑장에는 바비큐 그릴이 설치돼 있어 숯, 고기, 야채 등만 직접 가져오면 언제든지 바비큐 파티를 시작할 수 있다.

게다가 야구장, 족구장, 자전거 전용도로 등의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으며 근처에는 야외 수영장도 두 곳이나 있다.

◆가족 소풍에 제격 '양재 시민의 숲'

울창한 노송 숲으로 성장한 양재 시민의 숲에서도 바비큐 파티가 가능하다. 서구형 바비큐장 디자인을 노입해 공원에 어울리는 합기형 지붕 모양의 쉼터 6개와 테이블과 그릴 등 기본 장비가 구비돼 있기 때문이다.

또 바비큐장 근처에는 산책로 코스, 맨발공원, 조각공원 등이 있어 가족 소풍하기 안성맞춤이다. 단 시민의 편의를 위해 이용 시간은 3시간으로 제한돼 있으며 주변을 정비할 쓰레기봉투 등도 따로 준비해야 한다.

◆바비큐장의 새로운 매력 발산

경기 양주시에 있는 청미원식품은 가족과 연인들이 바비큐장에서 캠핑까지 즐길 수 있도록 최신의 잔디밭을 개방했다. 특히 청미원에 운영하는 농축산물판매장에서 돈육을 구입한 뒤 바로 현장에서 먹을 수 있으며 바비큐 용품도 대여 가능하다.

이와 함께 주차가 가능한 인천 경제구역 송도국제도시 바비큐장은 주위에 만개한 꽃들과 열매를 맺은 보리가 가득해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곳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대명리조트로 캠핑 떠나요~

빌리지 와 '셀프 가든'으로 100배 즐기기

대명리조트가 캠핑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먼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소노펠리체에서는 리얼 캠핑도 즐기고 캠핑 노하우도 배울 수 있는 '소노펠리체 캠핑 빌리지'가 진행된다. 텐트 설치 및 캠핑 입문 강좌가 진행되며 푸르른 잔디 위에서 캠핑 체험과 디너를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설악의 비경과 어우러져 있는 델피노 골프 앤 리조트는 여유로운 공간에서 자유롭게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셀프 가든'을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운영한다. 천혜의 공간에서 맛있는 저녁과 함께 다양한 볼거리를 통해 캠핑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다.

비발디파크도 가족·지인 친구들과 함께 훈훈한 캠핑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셀프 가든'을 마련했다. 오는 18일 비발디파크 오션월드에서는 '2014 오션월드배 전국 실용무용대전'이 열려 색다른 재미를 더한다.

/황재용 기자

'하나투어 여행박람회' 연다

국내외 관광·문화 관련 업체 대거 참가

하나투어(대표 최현석)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2014 하나투어 여행박람회'를 개최한다.

'세상 구경 오세요'라는 주제로 열리는 박람회는 전세계 호텔, 리조트, 항공사, 관광청 등 800개가 넘는 국내외 관광·문화 관련 업체가 참여하는 여행 축제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 및 전세계 여행 정보, 다양한 여행 상품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지역관과 테마관 등 다양한 부스가 운영되며 국가별 문화 공연과 이벤트가 진행돼 전세계 여행을 미리 체험해 볼 수도 있다.

이와 함께 하나투어는 박람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고객과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총 3장의 세계일주 항공권을 경품으로 증정할 계획이다.

/황재용 기자

르네상스 서울 호텔, '애프터눈 딜라이트' 선봬

르네상스 서울 호텔이 매주 평일(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호텔 1층 트레비 라운지에서 무제한 디저트 뷔페인 '애프터눈 딜라이트'를 선보인다.

특히 다음달까지는 제철을 맞은 체리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체리 디저트 뷔페 'Cherry licious'가 진행된다. 'Cherry licious'는 체리와 Delicious의 합성어로 호텔은 이름에 맞는 맛있는 체리와 달콤한 디저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체리 머핀, 체리 치즈케익, 체리 파이 등과 함께 부드러운 도넛과 파운드 케익 등도 준비된다. 문의 02)2222-8666

/황재용 기자 hsoul38@

관광공사, '최고 여행지' 선정 이벤트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가 오는 26일까지 올해의 '베스트 그 곳'을 선정하는 투표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는 침체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투표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이벤트 코너에서 진행된다.

또 관광공사는 참여를 선정한 전국 21개 후보 지역을 대상으로 네티즌 투표 점수(60%)의 여행 전문 자문위원(40%) 심수를 합산해 최종 9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하윤 기자 kmc0614@

매일 아침, 푸룬으로 맛있고 가볍게

'테일러 푸룬 7일 체험단' 1기 진행 성료
체험단이 100% 만족한 테일러 푸룬의 힘

"매일 아침마다 테일러 푸룬을 먹는 습관을 들였더니 변비 개선에 효과가 있었어요."

지난달 진행된 '테일러 푸룬 7일 체험단' 참가자 박지현 주부의 후기다.

100년 전통 미국 캘리포니아산 푸룬을 국내에 공급하는 테일러팜스는 지난달 여성들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되찾아 주기 위해 체험단을 모집했다.

2주 동안 550여 명이 체험단 신청을 했고 테일러팜스는 대학생, 주부, 직장인 등 총 70명으로 체험단을 꾸렸다.

이들은 체험 기간 동안 푸룬과 푸룬 주스를 꾸준히 섭취하고 일기를 기록하는 데일리 미션과 다양한 돌발 미션을 통해 테일러 푸룬을 먹는 습관을 전파했다.

◆7일 후 경험한 놀라운 효과

체험단에게 제공된 푸룬은 서양자두를 말려 만든 건자두로 사과의 9배가 넘는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 또 면역력을 길러주고 노화 방지에 효과적인 항산화 성분과 철분, 칼륨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고 비타민을 고루 함유하고 있어 특히 여성 건강에 좋다.

7일 동안 체험단은 체험 후 눈에 띄는 몸의 변화를 경험했다. 실제로 테일러팜스가 체험단 후기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 모두 장 운동이 활발해져 변비가 개선됐다고 답했다. 피부 미용 개선 효과와 다이어트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도 각각 65%, 63%로 나타났다.

더욱이 체험이 끝난 후에도 테일러 푸룬을 구매해 먹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모두가 향후 테일러 푸룬을 직접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체험을 마친 김덕아씨는 "30개월 된 딸 아이와 함께 만성 변비로 고생했는데 테일러 푸룬을 7일 동안 섭취하면서 변비 개선 효과를 느꼈다"고 체험 소감을 전했다. 직장인 김현진씨 역시 "평소 과자나 빵 등 몸에 안 좋은 간식을 달고 살았는데 건과일 푸룬으로 간식을 대체하니 피부 트러블도 완화되고 포만감도 커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Q.장운동 개선효과를 느꼈다. — 100% 그렇다

Q.피부/미용 개선효과를 느꼈다. — 65% 그렇다

Q.다이어트 효과를 느꼈다. — 63% 그렇다

장기수 테일러팜스 대표는 "테일러 푸룬 7일 체험단을 통해 많은 여성이 푸룬의 효능을 직접 경험하게 됐다. 앞으로도 고객들이 직접 체험할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해 푸룬을 먹는 습관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전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테일러 푸룬은 ▲약국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유리브랜 ▲인터넷 쇼핑몰 ▲테일러팜스 온라인 쇼핑몰(http://www.taylorfarms.net/shop)에서 구매할 수 있다. /황재용기자

◆ 15일부터 '테일러 푸룬 체험 이벤트' 메트로신문 홈페이지에서 모집

테일러팜스는 테일러 푸룬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21일까지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이벤트 게시판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응모한 독자 중 10명을 선정해 5만원 상당의 테일러팜스 제품을 증정한다.

'에쎄' 수출 '지구 349바퀴'

세계 초슬림담배 판매 1위
한해 5억달러 이상 획득

"100여개 국내 시판 담배 중 판매 1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초슬림 담배". KT&G 전체 브랜드 가운데 40%의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토종 담배 브랜드 '에쎄'에 붙는 수식어다.

KT&G가 에쎄를 통해 우리나라 담배 주권을 지키는 것은 물론 한해 5억달러 이상의 외화를 획득하며 국가경제에 톡톡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 개방된 국내 담배시장은 지금까지 국내 토종 담배회사인 KT&G가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세계적으로 담배시장을 개방한 나라 중 로컬기업이 6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는 KT&G가 유일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처럼 KT&G가 국내 시장을 성공적으로 지키고 있는 요인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해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 전략과 ▲우수한 품질력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1996년 '에쎄' 출시 당시만 해도 초슬림형 담배는 전체 담배 시장의 1% 미만에 불과할 정도로 낯선 제품이었다. 하지만 에쎄는 한국 담배시장의 판도를 바꿔 놓았다. 작년 기준으로 초슬림 담배의 점유율을 32%까지 끌어 올렸다. 국내에서 팔리는 담배 4갑 중 1갑이 '에쎄' 인 셈이다.

특히 '에쎄'는 2001년 600만 개비를 첫 수출한 이후 2006년에 연간 수출 100억 개비를 돌파했다. 2011년에는 210억 개비를 판매해 해외시장 개척 10년 만에 연간 200억 개비 해외 판매시대를 열었다.

이 제품은 현재 러시아를 비롯한 중동·중앙아 유럽 등 전 세계 40여 개국에 판매되고 있다.

2013년 기준 '에쎄'의 해외 누적 판매량은 1397억 개비. 이를 길이로 환산할 경우 지구를 349바퀴 돌 수 있으며 달과 지구 사이를 18차례 왕복할 수 있는 거리다.

/정희 실기자

유통가, '가정의 달' 빵빵한 이벤트

세일에 포인트 카드 더블 적립, 이색 경품 제공까지

가정의 달을 맞이해 유통업계에 다양한 이벤트가 눈길을 끈다.

먼저 슈즈 쇼핑센터 ABC마트는 오는 22일까지 신발 2족 구매 시 10%, 3족 구매 시 20% 할인(일부 품목 및 브랜드 제외) 해주는 '가정의 달 이벤트'를 마련했다. 또 16~19일까지 성년의 날을 맞은 94년생들에게, 14~15일간에는 스승의 날을 기념해 모든 고객에게 추가 5% 할인 혜택을 선사한다. 또 이 기간 아동화 구매객 1만명에게 양말도 증정한다. BC카드로 10만원 이상 구매하는 선착순 1000명에게는 피크닉매트를(온라인 쇼핑몰 및 회원 제외) 선착순으로 증정하며 멤버십 회원 구매객 가운데 10명을 추첨해 캠핑 텐트 세트도 증정한다.

야외 활동이 잦으신 부모님의 선물을 찾고 있다면 아웃도어 제품만 한 게 없다. 밀레는 18일까지 전국 매장에서 제품 구매 때 엘포인트 카드를 제시하면 10% 할인 & 10% 적립이라는 더블 혜택을 특정 제품에 한해 누릴 수 있다. 성인용 기능성 티셔츠와 팬츠를 비롯해 키즈 아웃도어 제품을 두 개 이상 구매하면 최대 25% 할인해 준다.

CJ제일제당은 고객들이 부모님께 평소 전하지 못 했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건강도 챙겨드릴 수 있는 이벤트를 펼친다.

/정경호기자 jmo@metroseoul.co.kr

온라인몰, 영업정지에 단말기 판매 '특수'

지난 3월 13일부터 시작된 이동통신 3사의 순차적 영업정지 기간 동안 주요 온라인몰에서는 휴대폰 단말기 판매량이 급증하며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몰에서는 유심(USIM)만 꽂으면 사용이 가능한 자급제폰과 공기계, 국내 정식 유통되지 않는 해외 출시폰,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 등을 판매해 이통사 영업정지 기간에도 기기변경이나 알뜰폰 신규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터파크의 경우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최근 2개월간 휴대폰 단말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G마켓에서도 알뜰폰(MVNO) 선불폰 판매가 전년 대비 144% 급증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기간 공기계 판매는 13% 증가했다. 반면에 이동통신 3사의 신규가입, 보상기변 등은 소폭 감소해 대조를 보였다.

옥션에서는 최근 2개월간 휴대폰 공기계 제품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공기계 중고폰의 경우 같은 기간 5% 소폭 판매가 늘었다.

/정혜란 기자

짧고 굵게… '눈도장' 찍는 팝업스토어

브랜드 콘셉트 맞춰 공간 꾸며 즉석 이벤트도

팝업스토어가 대세다. 미국의 대형할인점 타깃(TARGET)이 2002년에 신규 매장을 설치할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자 단기간 임대한 임시 매장을 열었는데 의외로 인기를 끌어 이를 기업들이 벤치마킹해 생겨난 개념이 팝업스토어다.

짧은 기간 동안만 운영하기 때문에 '떴다 사라진다'는 의미의 팝업스토어는 이제 마케팅의 일환으로 한 축을 이뤘다. 소비자들에게 눈도장을 찍기 좋은 수단으로 팝업스토어가 뜨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공간이 아닌 다양한 이벤트와 이색 체험을 마련해 재미까지 더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잡고 있다.

주얼리 브랜드 윙그람은 전국 매장 내 팝업스토어를 열어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패션 타투를 그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지난 1일부터 현대백화점 천호점, 목동점, 무역점에서 시작된 이번 팝업스토어는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플라워 스크래치 럭키트리와 윙그람의 주얼리가 어우러져 봄의 화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꾸며졌다.

같은 시간대에 럭키 타임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정각마다 선착순 15명에게 럽핑 화분을 주며 구매 고객에 한해 윙그람 트리에 매달려 있는 기프트 쿠폰도 증정할 예정이다.

패션 브랜드 쎌스데이아일랜드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홍대점에서 여행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이색 팝업스토어를 연다.

매장은 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여행 콘셉트를 야외 공간에 캠핑카와 더불어 시즌 신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미스터 보우'를 부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윙그람 제공

이와 함께 '여기와 거기'의 저자 장우철 작가와 함께하는 여행사진전도 열 예정이다. 운영 기간 동안 딤요와 칸들 중 하나를 선물로 증정하는 트래블 타코 세트도 선보인다.

이 밖에 파리의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팝업스토어는 오는 18일까지 기존에 선보였던 주얼리를 비롯해 신발·가방 등의 신규 상품 카테고리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여성 고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눈에 띈다. 운영 기간 구매 고객에게 헤어스트랩을 증정하며 2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우산을 증정한다.

즉석 할인이벤트도 한다. 팝업스토어 내 마련된 포토월에서 사진을 촬영한 후 매장에 제시하면 현장에서 즉시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슈즈 브랜드 캐터필라는 14일까지 홍대 인근 편집샵 원즈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

국내 론칭 이후 처음으로 단독 매장 형태로 운영된 팝업스토어는 2014년도 봄·여름 시즌 주요 제품을 한 자리에 모았으며, 삭스 피팅존이 마련돼 다양한 디자인의 양말과 슈즈를 직접 자유롭게 매치해볼 수 있다.

회사는 스토어 운영 기간에 모든 구매 고객에게 윱 시즌 포인트로 활용하기 좋은 패션 양말을 증정했다.

/김학철기자 kimc0304@metroseoul.co.kr

쿨링기술 소재로 초여름더위 잡자

멀티 아쿠아 슈즈 등 기능성 제품 '눈길'

한낮에 날씨가 여름을 방불케 하는 날이 이어지면서 빠르게 출시된 여름 제품들이 눈길을 끈다.

화창한 날씨에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5월, 아웃도어 업계의 여름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업계는 쿨링 기술이 접목된 옷과 물놀이용 아쿠아 슈즈를 봄부터 선보여 본격 공략에 나섰다.

아웃도어 브랜드 컬럼비아는 자체 개발한 쿨링 기술 옴니프리즈 제로의 물량을 전년보다 4배 가량 늘리고 주력 여름 냉감 제품을 빠르게 출시하며 여름 공략에 나섰다.

옴니프리즈 제로는 이 회사가 개발한 쿨링 기술로 소재가 땀이나 수분에 닿으면 반응을 해 시원함을 느끼게 한다. 이 기술이 적용된 냉감 티셔츠는 쿨링 소재 외에도 강렬한 자외선 차단 소재, 통기성이 좋은 메쉬 소재를 결합했다.

노스페이스도 여름철 야외활동 시 땀이나 비로부터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빌리스 집티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안감 표면에 요철 처리된 액티브 센서 3D 원단을 사용해 통기성을 높였으며 땀이나 비에 젖었을 때도 원단이 몸에 달라붙지 않는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편안하면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신발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각종 기능을 탑재한 여름용 신발이 연이어 출시되고 있다.

아웃도어 브랜드 K2(대표 정영훈)는 캠핑시즌을 맞아 독특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워킹화 짚라이 아쿠아와 짚라이 캠프 2종을 선보였다.

머렐은 주력 제품인 아쿠아 슈즈 워터프로 바이오큐 지난해보다 한달 빠르게 출시하며 여름 대응에 나섰다.

레드페이스는 아쿠아 슈즈를 이번 시즌 전략 상품으로 출시하며 지난해보다 스타일과 컬러를 늘렸고 생산량은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고 전했다.

/김학철기자

머렐 아쿠아 슈즈 워터프로 마이포 / 레드페이스 스피크 아쿠아슈즈

'매너 있는' 패션 이렇게…

은사님 뵐 땐 '포멀룩', 친지 만날 땐 우아하게

가정의 달인 5월에는 평소 자주 찾아 뵙지 못했던 은사님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던 분들, 멀리 있는 친지들을 찾아 뵐 일이 많다. 고마운 마음을 전할 어른을 찾아 뵐 때는 선물을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신경쓰이는 것이 무더운 날씨에 입는 옷차림이다.

학창시절 은사님이나 연배가 있는 분들을 찾아 뵐 때 단정하면서도 격식을 차린 옷차림은 성공한 사회인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무채색 아이템으로 어두운 이미지를 연출하기보다는 편안한 소재와 차분한 느낌의 원피스나 밝고 시원한 컬러로 안정돼 보이면서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하는 것이 좋다.

부모님이나 친지들을 만나는 가족 행사에 참석할 때는 여성미에 초점을 맞춰 다소곳한 '내조의 여왕'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좋다. 이에 부합하는 아이템으로는 플라워 패턴의 니트 가디건이나 플레어 스커트 등을 추천한다.

자주 뵙는 분과 만날 때는 가벼운 디자인과 편안한 착용감을 갖춘 의상을 추천한다.

/김학철기자

"때이른 무더위, 소중한 분들 건강 챙기세요~"

강강술래 한우곰탕·보리굴비 등 최대 40% 할인
라임나무치과와 임플란트 무료시술 캠페인 진행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선물세트를 파격할인 판매한다.

강강술래는 온라인 쇼핑몰(sulle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 15일까지 지친 체력을 보충할 수 있는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대용량세트(800㎖ 5팩·15인분)는 3만3400원, 소용량세트(350㎖ 5팩·10인분)는 1만9500원에 40% 할인 판매한다.

또 이달 말까지 어린이선물세트(돈등심돈가스·모짜렐라치즈돈가스·칠칠한우떡갈비·흑임자한돈너비아니 각1세트)는 40% 할인된 3만9000원에 판매한다. 구매 시 벽돌

건 삼남감을 준다. 법성포에서 자연 해풍에 3개월 이상 말린 국내산 보리굴비 10마리 세트는 10만4000원, 20마리 세트는 17만2000원에 각각 2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

전 매장(여의도점 제외)에서는 이달 말까지 교원증을 제시하는 고객에게 10% 할인 혜택을 준다. 19일(성년의 날) 하루 동안 상계점 서초 농본농원점은 1994년생 방문고객에게 탐담 육하 케이크와 삼계인 1병을 증정한다.

한편 라임나무치과병원과 함께 5월 말까지 홈페이지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치아질환으로 고생하는 어려운 이웃 3분을 선정해 임플란트 또는 틀니를 무료로 시술해주는 사회공헌 캠페인을 한다. 라임나무치과는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임플란트·심미보철·교정·미백·충치치료 등 분과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분야 최고 실력을 갖춘 의료진이 신속한 맞춤 진단과 협진에 의한 원스톱 진료를 하고 있다.

/장윤희기자

'코쿤족' 늘자 유아용품 시장 '북적'

육아 맞춤 가전, 해외 브랜드 유통도 활기

타인과의 대인관계보다 가족과 자신의 안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코쿤족'이 프리미엄 유아용품 시장까지 웃음 짓게 하고 있다.

코쿤족은 계속된 불황에 불투명한 미래를 생각하며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힐링'과 '웰빙' 트렌드에 관심을 갖고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정서적·금전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경향은 불황 속에서도 먹을거리와 유아용품을 프리미엄으로 고집하는 현상으로 이어지며 국산 참기름이나 유기농 착즙주스, 고급 햇살 등의 매출이 급증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온가족이 사용하는 육아 맞춤 가전

코쿤족이 가족의 안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큰 만큼 자녀의 건강과 위생을 책임지는 가전 매출도 늘고 있다. 이 제품들은 육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성인들도 사용할 수 있어 활용폭이 넓다.

LG전자에서 출시한 미니 드럼세탁기 '꼬망스'는 월평균 200~300대가 판매되며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아기 옷 코스를 이용하면 아기 옷 세탁에 가장 적합한 온도인 60도에서 옷감에 맞는 최적의 상태로 세탁이 가능하며 소형이기 때문에 자주 빨아야 하는 아기 옷, 면 기저귀 세탁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제모의 베이비 쿠커 '치코 드롱기&미'는 이유식부터 아이 간식·디저트·유동식까지 조리하기 편리해 인기를 얻고 있다. 별도 물탱크 없이 스테인리스 용기 안에서 바로 스팀 조리를 할 수 있다는 점과 미세한 크림처럼 알갱이가 있는 유동식까지 9단계로 조절 가능한 파워 믹싱 기능이 장점이다.

◆해외 브랜드 유아용품 인기 높아

안전성이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아용품 시장에서는 코쿤족과 같은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인정받은 프리미엄 브랜드에 보이는 호감도와 신뢰도가 매우 크다. 노르웨이 브랜드 스토케(사진)는 국내 프리미엄 유아용품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스토케 제품의 인기는 아이와의 친밀함을 강조하는 북유럽식 육아법에 대한 관심이 유아용품 구매로까지 이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스토케 같은 북유럽 유아용품의 특징은 성장단계에 따라 각도나 높이 조절이 가능해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며 친환경 소재로 제작이 됐다는 점이다.

국내 유아용품 업체 역시 국내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고 해외에서 이미 인정받은 브랜드를 수입·유통해 판매 경쟁에 나서고 있다. 최근 보령메디앙스는 유아용품 프리미엄 전문샵 비비하우스(BB HOUSE)를 통해 프랑스 유아용품브랜드 베이비의 젖병과 젖꼭지, 국내 소비자에게 선호도가 높은 미국 아기띠 브랜드 에르고베이비를 입점 시켰다. 또 유아의류·용품 전문기업 아가방앤컴퍼니는 프랑스 브랜드 '엘르'를 수입·전개하면서 천연 소재 이불과 기초 내의로 구성된 '엘렌 시리즈' 등 출시하기도 했다.

/정혜선 기자 hung0404@metroseoul.co.kr

한 아이 육아비용 한달에 약 50만원

가계 지출에서 육아 비용은 얼마나 들까? 물티슈 순둥이 생산기업 호수의나라 수오미(대표 이미라)는 지난 한달 간 자사 온라인 쇼핑몰 순둥이몰에서 아이를 가진 고객 2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 아이당 한 달 평균 50만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 아이 기준으로 한 한 달 평균 육아비에 대해 응답자 43%(103명)가 '30만~50만원이 든다'고 답해 가장 많았다. 이어 ▲30만원 이하(25%) ▲50만~70만원(20%) ▲70만~100만원(5%) 순이었다. 100만원 이상 고액을 지출한 경우도 3%나 됐다.

육아 비용 중 가장 지출이 큰 항목은 보육·식비(39%)가 1위였고 이어 ▲교육비(21%) ▲위생용품(21%) ▲의류(10%) ▲의료(7%) 순이었다. 한 달 소비 지출 중 육아비용의 비중에 대해서는 157명(64%)이 25% 정도 지출한다고 답했다. ▲25~40% 지출(26%) ▲40~50%(7%) ▲50% 이상(2%) 순이었다. '품질이 떨어져도 저렴한 육아용품을 구입할 것인가'에는 74%가 구입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이는 '내 아이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해줘야 한다'는 엄마들의 심리가 투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최근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안전 및 건강 문제(60%)'라는 대답이 압도적이었다. 이어 ▲교육(22%) ▲키 성장(7%) ▲비만 과체중(6%) ▲기타(5%) 순으로 답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 엄마들의 걱정이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선 기자

지하철 1호선 용산역 광장에 설치된 베로카의 '응원계단' 앞에서 이 회사의 모델인 이승기씨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바이엘코리아 제공

베로카, '응원계단' 설치

용산역에 6월 3일까지

바이엘 코리아는 지난 13일 지하철 1호선 용산역 광장에 설치한 '베로카 응원 계단'을 공개했다.

이번 응원 계단 이벤트는 베로카 퍼포먼스 발포정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가족, 동료, 친구·선후배 등 소중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응원과 성공 기원의 메시지를 모집해 이 가운데 150개의 메시지를 선정, 10m에 이르는 용산역 광장의 계단에 새겨 넣어 완성했다.

선정된 문구 중에는 '봄날은 올거야' '영어 완전정복, 성공하길 바래' '광화문 오피스 인생 꿈은 이루어진다' '한 번 뿐인 인생 끝까지 최선을 다해 꿈을 이루자!' 등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수많은 메시지들이 기록됐다.

특히 이날 공개 행사에는 베로카의 광고 모델 이승기씨가 참석했다.

이승기씨는 "많은 분들의 소망과 응원이 저의 응원 메시지와 함께 베로카 응원 계단으로 현실화된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응원을 받고 소망을 이루길 바란다"며 "오늘 발포 멀티비타민 베로카의 응원 계단을 통해 많은 직장인들이 활력 넘치고 밝아진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긍정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바이엘 코리아 컨슈머케어의 김현룡 대표는 "멀티 발포비타민 베로카와 함께 일상의 활력을 충전하고, 하루의 성공을 시작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베로카 응원 계단'은 6월 3일까지 운영된다.

/정혜선 기자

홈쇼핑 뷰티 아이템 이렇게…

연예인 이름 내걸고 소비자 공략 '효과'

홈쇼핑에서 잘나가는 뷰티 아이템들이 있다. 쇼 호스트의 호소력 있는 멘트나 주문을 재촉하는 자막 외에도 홈쇼핑에서만 판매되는 브랜드나 다양한 구성 때문에 홈쇼핑에서만 화장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있을 정도다.

홈쇼핑에서만 판매되는 브랜드들은 홈쇼핑 뷰티 매출을 견인하는 공신이다. 유명 메이크업아티스트 이경민이 전개하는 홈쇼핑 전용 브랜드 터치 주의르의 'V스폴 케어스 메이크업 3종'은 지난 4월 첫 론칭 방송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홈쇼핑에서 판매되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에 비해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형, 독특한 성분, 다양한 기능으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여개은 제품명 대신 친근한 연예인의 이름을 애칭으로 사용한 제품 역시 홈쇼핑 고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과거 홈쇼핑 에서 히트 상품이었던 '하유미 마스크 팩' 등 여러 연예인들이 본인의 이름을 내건 홈쇼핑 화장품을 직접 본인의 이름을 내걸고 방송에 나와 소개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제품력도 보장된다고 느낀다.

배우 신은경이 직접 참여한 '신은경 르할골드 캐비어 데이션'은 입소문을 타고 높은 판매고를 올린 제품이다. 당초 모델로 제의 받은 신은경이 제품의 품질을 높이려 가해 임상 시험과 각종 테스트 등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사업에 동참하게 된 점 등이 제품 신뢰도를 더욱 높였다.

몇몇 제품들은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몰에서도 쉽게 접할 수 없는 풍성한 구성 때문에 반드시 홈쇼핑에서 구입해야 하는 제품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방송될 때마다 엄청난 판매율을 자랑하는 아이오페 '에어쿠션(사진)'은 홈쇼핑에서 좋은 구성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유명한 제품 중 하나이다.

/정혜선 기자

“칸 초대, 너무 좋아 폴짝 뛰었죠”

영화 '도희야'로 두 번째 레드카펫 밟는

배두나

국내와 일본 할리우드를 오가며 활약 중인 배두나(35)가 한국영화 '도희야'(22일 개봉)로 관객과 만난다. 이 영화는 외딴 바닷가 마을에 좌천돼 내려온 파출소장 영남(배두나)이 폭행에 홀로 노출된 14세 소녀 도희(김새론)와 만나 벌어지는 일을 그린 이야기로 14일 개막한 제67회 칸 영화제의 '주목할 만한 시선'에 초청돼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14일까지 국내 홍보 일정을 소화한 뒤 다음날 바로 프랑스행 비행기에 오르게 된 배두나는 "아직 여행 짐은 꾸리지 못했는데 초대받아 기쁘다"며 들뜬 모습을 보였다.

◆'괴물' 이후 '공기인형' 이후 두 번째로 칸을 방문하는 소감은

전에는 내가 선택을 받아서 갔다면 이번엔 내가 선택해서 가는 느낌이 든다. 좋은 선택을 했다는 칭찬을 받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 기쁘다. '괴물'과 '공기인형' 이 칸에 초대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그래요' 하고 말았는데 이번엔 너무 좋아서 뛰어다녔다.

◆칸에 갈 준비는 했나

칸에는 3일 정도 머물 예정이다. (잦은 해외 촬영 때문에) 아센 짐 싸는데 도사가 돼서 긴 방문을 앞두고 미리 준비할 게 없다. 양치도구는 가방에 늘 있고 돌아다닐 일이 많아서 옷을 안 산지도 오래다. 20대에는 여행이 놀이였는데 지금은 일상이 됐다. 요즘엔 영어 배우는 것에만 지중하고 있다. 그래도 카메라 정도는 들고 가려고 한다.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하다가 저예산 영화인 '도희야'를 선택한 이유는

먼저 시나리오를 쓴 정주리 감독님의 문제가 여백이 많아서 마음에 들었고 영남이 한국 영화에서 보기 드문 멋진 캐릭터라 반가웠다. 요새는 좋은 시나리오라도 영화로 나오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아서 '도희야'가 엎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또 영화를 찍으며 타지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 한국 영화의 매력을 불러일으키는 '도희야'에 끌리기도 했다. 이 밖에 그동안 중간계(?)에 사는 듯한 역할을 주로 해서 현실적인 역할에 매력을 느끼기도 했다.

◆좋은 한국 영화를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나

우리나라는 작지만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면 한국 영화를 아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심지어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복수는 나의 것'으로 나를 알아보는 사람도 꽤 있다. 한국 영화의 힘은 연력 차원이고 이미 봉준호·박찬욱·김기덕·홍상수 등 좋은 감독이 많다. 다는 특별한 사명감이 들었다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한국 영화를 하고 싶다는 갈증을 느꼈다.

◆더욱이 노개런티로 출연했다고 들었다

재정적인 면에서 살펴면 긴 없었다. 하지만 저예산 영화라 스태프들이 피곤해하며 고생하는 것을 지켜보는 게 힘들었다. 심지어 스태프들이 촬영을 조금이라도 중단할 수 있게 짜증이라도 내달라며 하소연을 할 정도였다. 성실한 여배우가 좋기만 한 건 아니구나라고 느꼈다. 하하하

◆여성인 정주리 감독과 호흡을 맞춰본 소감은

이전에 '고양이를 부탁해' 정재은 감독, '클라우드 아틀라스' '주피터 어센딩'의 라나 워쇼스키 등 여자 감독과 작업했다. 여자 감독은 말하면 통하는 게 있어서 연기하기 편하다. 그런데 이번엔 감독이 나를 너무 믿어서 그런지 촬영하면서 말을 많이 이끼 힘든 부분이 있었나. 물론 한편으론 내 연기를 섬세하게 알아채고 함께 공감하며 울기도 했다. 뚝심과 여우라도 있어 훌륭한 감독이 될 자질을 갖췄다고 느꼈다.

> “요새 영어 배우는 데만 열중
> 영남 캐릭터 힘들었지만 몰입
> 한국 영화에 대한 갈증 풀어”

◆이전과 비교해 작품을 선택하는 눈이 달라졌나

이전엔 캐릭터, 감독,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등 여러가지를 따졌다면 이젠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 그만큼 작품을 선택하는 폭이 넓어졌다. 신인감독이라도 믿어보는 여유가 생겼다. 전엔 그런 확신은 없었다.

◆처음 영남이라는 캐릭터를 만났을 때 느낌은

원래 분량이 적어도 인상이 강렬한 역할을 선호하는 편이다. 그렇기에 영남은 내게 의외의 선택이었고 연기하기 어려운 캐릭터였다. 극을 이끌어가면서도 캐릭터의 외로움과 비밀을 분출하지 않고 누르고 가야 했다. 그런 영남의 마음을 견디기 힘들었지만 이해하고 몰입했다.

◆할리우드 시스템을 경험한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한국 영화에 대한 갈증이 더 커졌다. 일본이나 할리우드에서는 촬영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부드럽게 진행된다. 반면 한국 영화는 '기가 몸에 찬다'는 표현처럼 몸과 마음을 다 내던져 촬영하는 스타일이다. 너무 힘들지만 그만큼 희열이 있다. 이번에 한국 영화에 대한 갈증을 원 없이 풀었다.

/이진호기자 jsk0427@metroseoul.co.kr 디자인/[illegible]

결혼 미루는 자녀 때문에…올해도 '축의금 품앗이'만 하다 끝?

주변 결혼식은 늘어나고, 결혼 적령기 자녀는 느긋하고 속 타는 부모들 결혼 상담 부쩍늘어

서울 서초구에 거주 중인 김상중 씨(60세)는 요즘 걱정이 많다. 부쩍 많아진 결혼식에 축의금 지출은 늘어가는데, 정작 딸의 결혼 소식은 잠잠하기 때문. "3년 새 주변에 결혼식이 크게 늘었어요. 정작 우리 애는 느긋하고 걱정이 크죠."

정선화씨(58세·강남구)도 아들의 혼사에 마음이 쓰인다고 말한다. "싹싹한 며느리, 예쁜 손주 둔 친구들 볼 때마다 참 부럽죠. 올해도 봉투만 보내다가 지나버리면 어쩌나 싶고…"

여전히 미혼으로 남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소위 '축의금 품앗이' 문제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주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처럼 여기곤 한다. 하지만 초혼 연령이 높아 지고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올해도 축의금만 내다 끝나는 건 아닐까 하며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다.

가연결혼정보(주)의 박미숙 이사는 최근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직접 상담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한다. "올해 들어 자녀분들이 어서 짝을 찾길 바라는 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 안정된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들은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다 며 결혼을 미루는 자녀를 위한 해결책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있다.

이경원씨(65세·송파구)는 작년 초 딸(28세)의 결혼 상담을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아버지 만큼이나 남편에 대한 기대가 컸던 딸은 결혼정보회사에 회구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 결과 딸이 원하는 이상형과 부모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윗감을 만나 지난 2월 결혼식을 올렸다.

박씨는 "딸 가진 부모 마음 다 똑같나.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았으면 했다.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던 이유도, 원하는 사윗감에 대해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였다. 지금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사위를 뒀다"며 웃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080-586-5000)

가연결혼정보의 특별한 한정혜택!

10% 할인, 12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 선보여…

공기업 연구원 정성호씨(31세)는 최근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누구의 권유나 추천도 아닌 본인의 결정이었다. "바쁘게 살다보니 해가 바뀌고 세월도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안에 저도 제 짝과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급하다고 아무나 만날 순 없고, 제가 원하는 상대를 찾고 싶었어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찾는 미혼남녀들이 늘고 있다.

행복한 결혼은 사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결혼정보회사 찾는 법 따로 있다

어떻게든 하루빨리 짝을 찾고 싶은 마음에 결혼정보회사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조급함만 앞서 아무 회사나 선택 하는 것은 금물.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자.

(결혼정보회사 가입 시 확인할 것)

공정위 표준약관 100% 준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준수 여부
회사의 규모와 공신력
서비스 품질, 사후 관리, 전문성 갖춘 인력, 시설 등
철저한 회원 신원인증
미혼, 학력, 재직 등 엄격한 회원 신원인증 절차
개인정보 보안 관리
회원 개인정보에 철저한 보안 및 관리
회원 매칭 시스템
전문적인 커플 매니저에 의한 세심한 관리

결혼정보분야 3년 연속 1위 기업

꾸준히 신뢰받는 이유는

가연은 결혼정보분야에서 3년 연속 1위(2011, 2012, 2013랭키닷컴 기준)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및 대한민국 중소 중견기업 혁신대상 3년 연속 수상,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2014 국가브랜드대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입증했다. 이렇듯 높은 고객만족도를 자랑하게 된 중심에는 가연이 개발한 독자적인 매칭서비스가 있다. 1:1 오프라인 매칭에 의존했던 업계에서 꾸준히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연만의 매칭시스템인 GMS(Gayeon Matching System)를 기반으로 커플매니저 2명이 1명의 회원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성혼 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ISO9001, INNOBIZ 벤처기업 인증 등을 통해 그 우수함을 인정받기도 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080-586-5000)

"행복한 결혼을 위한 기준은 다 다르니까, 등급은 필요 없죠"

결혼정보회사는 직업이나 경제적 능력만으로 평가 하고, '등급'을 매길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 그러나 가연결혼정보(주) 조인상 커플매니저는 오직 인연을 찾아 드릴 뿐, 등급은 없다고 말한다.

◇ 결혼정보회사에 등급은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인가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등급을 나눌 거라는 선입관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 가연에서는 등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급 개념 자체가 없는데요. 저희는 고객이 원하는 배우자 상대를 찾아 드릴 뿐, 등급에 따라 매칭하는 곳이 아니니까요.

◇ 등급은 없더라도 조건은 여전히 중요하지 않나요?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결혼정보회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마다 배우자에 대해 바라는 조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객이 원하는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배우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상담 시 다양한 이상형 조건들을 수집하죠. 어떤 분은 배우자가 공무원이길 바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같은 종교'이길 바랄 수도 있는 것처럼 누구나 바라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와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찾아드리기 위해 배우자 조건에 대한 상담은 필수 과정인 거죠.

가연결혼정보(주) 조인상 팀장

◇ 결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린다면?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평생 함께할 사람을 찾는 일인 만큼 의지를 갖고 노력하셔야 하죠. 결혼정보회사의 성혼 프로그램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험해본 바로는 적극적인 분들일수록 매칭 성공률도 높더라고요. 기회는 노력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 무료상담전화
080-586-5000

가연결혼정보

'열애중' 가인 "오늘따라 외로워"

팬텀 신곡 피처링으로 활동나서

열애 소식으로 화제를 모은 브라운아이드걸스의 가인이 팬텀의 신곡 피처링으로 활동에 나선다.

팬텀은 소속사 공식 SNS에 '5/19 릴리스 팬텀-오늘따라 (피처링 가인)'이라는 글과 함께 가인과 녹음실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오늘따라'는 19일 출시되는 팬텀의 첫 정규앨범 '팬텀 파워'의 타이틀곡이다.

가인은 "피처링 제의가 들어온 곡들 중 '오늘따라'가 제일 좋았다. 그리고 이 노래에 내 목소리가 어울리고 필요할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다"며 '오늘따라'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그는 또 "'오늘따라 외로워 이상하게 외로워'라는 가사처럼 최대한 외롭게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주변 스태프 모두 남자여서 외롭지 않았지만 최대한의 감정을 담아 외롭게 불렀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오늘따라'는 가인의 애절한 목소리와 팬텀만의 감성코드가 잘 담긴 곡이다. '팬텀 파워'에는 '오늘따라'를 포함해 총 11개 트랙이 실린다.

/황순호기자 suno@

가인과 팬텀

김태우 PD, 강신효, 신소율, 김옥빈, 이희준, 서유정, 이문식, 조희봉(왼쪽부터)이 드라마의 흥행을 다짐하고 있다. /JTBC

김옥빈 "다 빼먹을 거예요"

월화극 '유나의 거리' 소매치기 역
2014년판 '서울의 달' 탄생 기대

자극·막장 코드에 지친 시청자들을 따뜻하게 감싸줄 드라마 한 편이 시작된다.

19일 첫 방송을 앞둔 JTBC 새 월화극 '유나의 거리'(사진)는 서울 한 동네 다세대 주택에 모여 사는 하류인생들의 희노애락을 그린다. 1994년 방영된 드라마 '서울의 달'의 김운경 작가가 대본을 맡은 '유나의 거리'는 소매치기, 꽃뱀, 공사장 인부, 건달 등 전직 조폭 배우 지망생 등 소위 '3류'라 불리는 인생들의 모습을 맛깔나게 담아낼 예정이다.

'서울의 달' 주인공 한석규가 제비 역할이었다면 '유나의 거리' 주인공 강유나(김옥빈)는 전설적인 소매치기였던 아버지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은 미모의 도둑이다.

14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김옥빈은 "전직 소매치기에게 수업을 받았다"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소매치기를 해서 놀랐다.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훔치는 액수가 많아서 놀랐다"고 말했다.

또 "50부작 드라마는 처음이라 제게 있어서 마라톤과 같다. 긴 호흡이 부담스럽지만 훌륭한 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 중이다. 좋은 거 다 빼먹으러 왔다"고 남다른 각오를 내비쳤다.

유나의 옆방에 사는 취업준비생 김창만 역은 이희준이 연기한다. 희준은 좀도둑 유나와 달리 평생을 착하게 살아온 인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항상 밝게 웃는 청년이다. 이희준은 "다른 생각 안 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만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출을 맡은 임태우 PD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 채 사는 현대인들에게 '유나의 거리'는 낯선 타인에 대해 연구하는 드라마이자 인간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는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나의 거리'는 정종준, 안내상, 이문식, 김희정, 조희봉, 서유정, 신소율, 강신효 등 연기파 배우들이 각자 개성넘치는 캐릭터로 등장한다.

/김지민기자 ianpkim@metroseoul.co.kr

윤하 소속사 실력파 뮤지션 '집결'

가수 윤하와 노영채 등이 소속된 위얼라이브와 소울다이브, 울티 등이 소속돼 있는 얼라이브가 손을 잡았다.

위얼라이브와 얼라이브 측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음악 팬들을 위한 즐거운 동행을 시작한다"며 "다양한 음악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프로듀서와 싱어송라이터 등 실력파 뮤지션들이 함께 음악으로 팬들에게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위얼라이브에는 윤하를 비롯해 노영채, 지타 등이, 얼라이브에는 소울다이브, 울티 등 개성을 겸비한 아티스트들이 함께 하고 있다.

위얼라이브와 얼라이브는 "보다 다양한 음악을 즐기는 환경에서 만들어가려는 의지가 강한 아티스트와 프로듀서들이 뭉친 만큼 새롭고 도전적이며 음악 팬들의 귀를 즐겁게 할 곡들을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윤하는 다음달 13일 열리는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코리아 2014'에서 공식 테마송 '스테이 위드 미'를 부른다. 윤하는 페스티벌에도 깜짝 등장할 예정이라 어떤 무대를 보여줄 지 관심을 모은다.

/김하나기자

윤하

소울다이브, 지타, 노영채, 울티(위부터 시계방향으로)

EXO 첫 번째 콘서트 포스터 이미지

엑소, 첫 공연 세계적 안무가와

토니 테스타 퍼포먼스 연출

'대세 아이돌' 엑소가 세계적인 안무가 토니 테스타와 손잡았다.

엑소는 23~25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첫 단독 콘서트 '엑소 프롬. 엑소플래닛 #1-더 로스트 플래닛'에서 토니 테스타와 호흡을 맞춘다.

이번 콘서트 총 연출을 맡은 안무가 토니 테스타는 브리트니 스피어스, 재닛 잭슨, 카일리 미노그 등 유명 팝스타들과 함께 작업한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안무가다. 국내에서는 동방신기의 '캐치 미', '섬씽', 샤이니의 '드림 걸', '에브리바디', 엑소의 '늑대와 미녀', '중독' 등 화려한 퍼포먼스로 잘 알려져 있다.

소속사 관계자는 "테스타가 연출가로 참여하면서 좀 더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게 됐다"며 "첫 단독 콘서트는 엑소의 음악, 퍼포먼스, 매력이 집약된 완성도 높은 공연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번 공연은 엑소가 데뷔 후 처음 선보이는 단독 콘서트다. 티켓은 예매 오픈과 동시에 전석 매진, 팬들의 요청으로 1회 공연이 추가되는 등 엑소의 인기를 실감케하고 있다.

한편 엑소는 새 미니앨범 '중독'으로 활동 중이다. 이 곡은 한터차트, 핫트랙스, 신나라레코드, 예스24 등 각종 음반판매량 주간차트(5일~11일) 1위에 올랐다. 또 대만과 중국에서도 음반 차트 정상을 차지하며 아시아를 아우르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정성훈기자 yuen@

심사위원 전도연 사로잡을 주인은?

칸영화제 개막… 황금종려상 놓고 18편 불꽃 경쟁

세계 3대 국제 영화제 중 하나인 칸 영화제가 14일 프랑스 칸에서 개막했다.

올해로 67회다. 심사위원 기자회견과 개막작인 '그레이스 오브 모나코'의 상영을 시작으로 12일간의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칸 영화제의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의 주인공을 가리는 경쟁 부문에 올해는 거장부터 미성과 신예까지 다양한 감독의 작품 18편이 올라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전반적으로 유럽 영화가 강세를 띤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중에서 벨기에 출신 형제 감독인 장 피에르 다르덴·뤽 다르덴의 '투 데이즈 원 나잇', 영국 출신 켄 로치 감독의 '지미스 홀', 영국 출신 마이크 리 감독의 '미스터 터너'가 눈에 띈다. 모두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거장들의 작품이다.

수상 경력은 없지만 올해 84세로 이번 경쟁 부문 감독 중 최고령인 프랑스의 거장 장 뤽 고다르 감독의 신작 '굿바이 투 랭귀지'도 유력한 후보로 점쳐지고 있다.

한국영화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경쟁 부문에 진출하지 못했다. 임권택·김기덕·홍상수 등 기대를 모았던 한국 감독의 신작이 진출에 실패했다.

대신 젊은 감독들이 다른 부문에서 뜻깊은 성과를 냈다. 김성훈 감독의 '끝까지 간다'가 감독주간에, 정주리 감독의 '도희야'가 주목할 만한 시선에, 창감독의 '표적'이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초청됐다. 권현주 감독의 '숨'은 학생들의 중·단편 우수작을 소개하는 시네파운데이션 부문에 진출했다.

전도연이 칸영화제 개막식 전 호텔에서 ... 카메라 세례를 받고 있다. /AFP연합뉴스

◆ 패티슨·전도연 등 스타 총출동

칸 영화제에는 스타들도 총출동한다. '그레이스 오브 모나코'의 니콜 키드먼을 비롯해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여배우 소피아 로렌, '더 홈스맨'의 메릴 스트립 등이 칸을 찾는다. 최근 연인 관계에 종지부를 찍은 '트와일라잇'의 스타 로버트 패티슨과 크리스틴 스튜어트도 각각 '맵스 투 더 스타즈'와 '실스 마리아'로 참석할 예정이라 재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스타로는 한국 배우 최초로 경쟁 부문 심사위원에 위촉된 전도연이 가장 눈에 띈다. 그는 14일 열린 심사위원 기자회견에 참석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고 이 자리에서 "긴장되지만 성실히 잘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폐막식 날까지 머무르며 심사를 할 예정이다.

또 '도희야'에 출연한 배두나·김새론·송새벽, '표적'의 유준상·김성령도 칸에 입성한다. 송혜교는 오우삼 감독의 신작 '태평륜'의 주연배우로서 영화제를 찾는다.

/유순호 기자 tak0427@metroseoul.co.kr

버터플라이 프로젝트 공모

CJ E&M이 신인 감독을 발굴하는 '2014 버터플라이 프로젝트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부터 다양성 영화부터 상업영화까지 장르와 예산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당선작은 참가자들이 접수한 장편 극영화 시나리오 초고와 포트폴리오를 심사해 선정되며 내년 제작에 돌입한다.

참가 자격은 단편·중편·장편 영화를 연출해 본 유 경험자다. 심사는 접수된 시나리오와 이력 검토를 중심으로 1차 서류, 2차 면접으로 이뤄진다. 최종 선정작은 3편 이내며 12월 발표된다. CJ E&M 측은 신인 감독의 데뷔작 혹은 차기작 제작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버터플라이 프로젝트 공모전에 참가하려면 홈페이지에서 응모 서류를 다운받아 10월 20~27일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전효진 기자 jeonhj@

일상과 호흡하는 미술품

갤러리위 '엔비 마이 홈' 展

갤러리위가 30일까지 일상과 호흡하는 미술품을 소개하는 '엔비 마이 홈(ENVY MY HOME)'전을 진행한다.

이 전시회는 갤러리위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진행하는 기획전으로 황은화·손지일·추영애 등 세 작가가 참여한다.

황은화 작가는 3차원 공간 위에 하나의 시점이 점섬하는 2차원 평면의 그림을 엮어 나가는 작업을 한다. 작가가 던지는 또 하나의 시선은 관객들의 또 다른 시선들과 교류하면서 실제와 환영 사이의 문제 의식으로부터 창작자와 수용자 간 예술이 매개하는 상호 작용으로 변환한다.

손지일 작가는 소비 상품으로서의 명품 이미지를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 작가다. 명품 디자인이 가지는 조형성을 3D로 재구성함과 동시에 병치되는 소재의 결합으로 명품 내면의 모순을 시니컬하게 좇아 가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는 시각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추영애 작가의 '기억된 공간'

추영애 작가는 작가 본인의 방 위부를 옮긴 것에서 작업이 시작됐다고 얘기한다. 작거나 낡았지만 버리기 아까워 모아 두었던 헌 옷들이 수공 과정을 거쳐 삶을 담는 공간의 일부로 옮겨가며 따뜻하고 부드러운 매체로서 의미의 확장을 이룬다.

갤러리위 측은 "'엔비 마이 홈'전을 통해 공간과 예술이 완벽히 조화하는 아름다운 호흡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갤러리위는 BTL 마케팅 전문기업인 이벤트그룹 위의 23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트 비즈니스 네트워킹, 국내외 유명작가를 중심의 작품 전시, 기업과의 공동 공모전 개최를 하며 예술인 발굴과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문의 (02) 517-3266

/박진영 기자

펜타포트 록페 8월 1일 개최

국내 대표 록 페스티벌인 펜타포트가 올해 9번째 개최 일정을 확정했다.

제9회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은 8월 1~3일 송도 국제도시 달빛축제공원에서 개최된다. 지난해에는 들국화·스웨이드·폴 아웃 보이·스키드 로·스틸하트·YB·뜨거운 감자·장신예 등 국내외 유명 뮤지션들이 참가한 가운데 8만5000여 명의 음악 팬들이 펜타포트를 찾았다.

올해도 폭 57m, 높이 20m, 깊이 20m의 대형 삼선무대를 비롯한 3개의 정규 스테이지, 2개의 이벤트 스테이지 등 총 5개의 무대를 선보인다. 각종 이벤트들과 관객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부대시설, 무더위를 식혀줄 수영장·푸드존, 가족 관객을 위한 키즈존, 잔디와 조경을 보완한 캠핑존 등이 마련된다.

20~31일 1차 마니아 티켓이 20% 할인된 14만9600원(3일권)에 판매된다. 1차 라인업은 20일 발표된다.

/유순호 기자 suno@

박지성이 기자회견장에서 예비신부 김민지 전 아나운서(왼쪽)에게 꽃다발을 받고 즐거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상 앞에 멈춘 '두개의 심장'

박지성, 몸 상태 악화 은퇴 회견
"원하는 것 이상 충분히 얻었다"

'영원한 캡틴' 박지성(33·PSV아인트호벤)이 올 시즌을 끝으로 그라운드를 떠난다.

박지성은 14일 경기도 수원 박지성축구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시즌을 끝으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현재 몸 상태가 좋지 않다. 무릎 상태 악화로 더 이상 경기를 뛰지 못한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지난 2월 은퇴를 결심한 박지성은 "무릎 통증으로 경기가 끝나면 4일 정도 휴식을 갖고 다음 경기에 출전했다"며 "다음 시즌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2013~2014시즌 네덜란드 PSV에인트호벤에서의 성공적인 임대 생활을 마친 박지성은 원 소속팀인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리그) 퀸즈파크레인저스와의 계약기간이 1년 남아있다. 그는 "소속팀 계약기간이 남아있지만 팀에 현재 상태를 이야기했고, 긍정적으로 받아줬다"며 "구단주도 은퇴 결정을 수용해줘 고맙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축구를 처음 시작한 그는 2014년, 25년 축구인생의 마침표를 찍었다. 세류초-안용중-수원공고-명지대-교토상가(일본)-에인트호벤(네덜란드)-맨유(잉글랜드)-퀸즈파크레인저스-에인트호벤으로 이어진 긴 발걸음을 끝냈다.

그는 "후회는 없다. 선수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경력보다 많은 것을 얻었다"며 "그 중심에는 저를 응원해준 팬이 있었다. 그동안 받은 사랑을 어떻게 돌려드릴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성은 김민지 전 SBS 아나운서와의 결혼 계획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그는 "7월 27일 결혼한다. 결혼식 기자회견은 별도로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함께 뜻을 전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향후 거취에 대해 "은퇴 후 국내에 머물지 않고 유럽에서 생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지성은 22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과, 24일에는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경남 FC와 친선경기에 참여한다. 박지성은 각 경기당 45분 이상 출전할 예정이다. 박지성이 소속팀 유니폼을 입고 국내팬 앞에서 인사하는 마지막 자리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축구 대표팀 '즐겨라, 대한민국'

월드컵 슬로건 확정

한국 축구 대표팀이 브라질월드컵 공식 슬로건을 '즐겨라 대한민국(Enjoy it, Reds)'으로 정했다.

슬로건은 브라질월드컵에서 각국 대표팀이 이용할 팀 버스에 부착된다. 각국 대표팀 버스를 후원하는 현대자동차가 국제축구연맹(FIFA)과 함께 전 투표를 통해 본선에 나온 32개국 슬로건을 선정했다.

한국과 같은 조에 속한 러시아는 '아무도 우리를 잡을 수 없다(No one can catch us)'로 내걸었고, 2차전 상대인 알제리는 '브라질 사막의 전사들(DESERT WARRIORS IN BRAZIL)'을 슬로건으로 정했다. 벨기에의 슬로건은 '불가능을 기대하라!(EXPECT THE IMPOSSIBLE)'다.

개최국인 브라질은 '용기를 내라! 6번째 우승이 온다!(BRACE YOURSELVES! THE 6TH IS COMING)', 대회 2연패를 노리는 스페인은 '우리의 마음은 챔피언의 열정(Inside our hearts, the passion of a champion)'이라는 문구를 팀 버스에 붙인다. 일본은 '사무라이여 싸울 시간이 왔다!(SAMURAI, THE TIME HAS COME TO FIGHT)'를 슬로건으로 정했다.

/유순호기자 [illegible]

13일 오후 경기도 파주 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실시된 월드컵 축구대표팀 소집훈련에서 손흥민(오른쪽)이 다른 선수들과 함께 운동장을 뛰던 중 김신욱에게 슈팅하는 동작 자세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한 한화 수석코치 사임

김성한(사진) 한화 이글스 수석코치가 사임했다.

한화는 김 코치가 14일 오전 구단에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코치는 2~3일 전 김응용 감독에게 사임 의사를 밝혔고, 김 감독은 고심 끝에 김 코치의 의사를 받아들였다. 사임 이유는 팀 성적 부진으로 예상된다. 한화는 김 코치가 부임한 지난해 최하위를 기록했고, 올해도 8위에 머물러 있다.

지난 시즌 김응용 감독과 함께 '해태 사단'의 한 명으로 코치진에 합류한 김 코치는 구단을 통해 "수석코치로서 감독님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김응용 감독은 "남은 시즌을 수석코치 없이 치르겠다. 김 수석의 사임이 팀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화는 김성한 코치에게 남은 시즌 동안 구단의 자문과 인스트럭터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프로야구 전적 (14일)

■잠실

팀	1-3	4-6	7-9	R
롯데	000	100	000	1
LG	100	010	00X	2

[illegible]

■문학

팀	1-3	4-6	7-9	R
두산	100	222	410	12
SK	200	000	000	2

[illegible]

■대구

팀	1-3	4-6	7-9	R
한화	100	000	011	3
삼성	001	005	40X	10

[illegible]

■마산

팀	1-3	4-6	7-9	R
KIA	100	021	010	5
NC	300	010	05X	9

[illegible]

AFC 챔피언스리그 전적 (14일)

서울	1	2	가와사키

[illegible]

류현진·추신수 MLB 톱10 왼손잡이

미국 CBS스포츠 선정

미국 프로야구에서 맹활약하는 류현진(27·LA다저스, 오른쪽 사진)과 추신수(32·텍사스, 왼쪽)가 메이저리그 최고의 왼손투수와 왼손타자로 선정됐다.

미국 스포츠매체 CBS스포츠는 14일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왼손 투수와 타자를 각각 10명씩 선정했다. 류현진은 투수 10위, 추신수가 타자 4위를 차지했다.

CBS는 "류현진은 메이저리그서 통산 37차례 선발로 등판해 평균자책점 3.00을 기록하며 LA 다저스 3선발로 자리매김했다. 탈삼진이 볼넷보다 3배 이상 많다"고 했다. 실제로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통산 185탈삼진, 60볼넷을 기록 중이다. 류현진이 미국 언론에 제구력 투수로 분류된 결정적인 이유다. 왼손 투수 중 메이저리그 최고로 꼽힌 선수는 단연 류현진의 동료인 다저스의 에이스 클레이턴 커쇼였다.

최고의 왼손타자 부문에는 추신수가 네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CBS는 "추신수는 2013년부터 올 시즌까지 187경기서 출루율 0.430, 25홈런, 23도루, 2루타 41번을 기록했다. 최고의 왼손타자 명단에 올라와야 한다"고 했다. 추신수는 올 시즌 텍사스로 이적해 타율과 출루율 모두 아메리칸리그 최고 수준의 기록을 내고 있다. 13일 경기까지 타율 0.328로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다.

한편 CBS는 왼손투수 부문에 커쇼에 이어 크리스 세일(시카고 화이트삭스), 데이비드 프라이스(탬파베이), 클리프 리(필라델피아), 존 레스터(보스턴) 등을 꼽았다. 메이저리그 최고의 왼손타자로는 조이 보토(신시내티)를 필두로 로빈슨 카노(시애틀), 데이비드 오티스(보스턴), 크리스 데이비스(볼티모어), 아드리안 곤잘레스(LA 다저스) 등이 상위 10위에 포함됐다.

/[illegible]기자

어느
부드러운 봄날
처음처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